

할렐루야! 세상의 전쟁과 환란 가운데서도 장차 큰 영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6월 1일 (토) 제 1970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8회 총회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

총회장 권혁천 목사, 부총회장 한일철 목사

제48회 미주한인장로회(KAPC 총회장 김성국 목사)가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라는 주제로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위치한 Embassy Suite Burlingame Waterfront에서 열린 가운데 신임 총회장 권혁천 목사를 선출했다.

권혁천 총회장은 “총회장으로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48회 총회를 시작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한 회기 잘 감당하겠다. 따뜻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성국 총회장 인도로 시작된 1부 개회예배는 가미노회장 오영환 목사 기도, 하와이노회장 홍기성 목사 성경봉독, 북가주노회장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부총회장 권혁천 목사가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삼상 17:13-3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문성록 목사(전 총회장) 축도에 이어 김경진 목사(전총회장)

집례로 열린 2부 성찬예식은 이정구 목사(가주노회장) 기도, 최해근 목사(필라델피아노회장) 성경봉독 후, 김경진 목사가 ‘눈물의 목회를 이루어(행 20:3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성찬위원들이 분잔과 분병을 했으며 전총회장 홍기표 목사가 축도했다.

▲첫째 날 회무처리

김성국 총회장 사회로 오후 8시에 열린 3부 회무처리는 서기회원호명, 김성국 총회장 개회선언, 48회 총준위위원장 민봉기 목사 환영사, 절차보고, 고시부 보고가 있었으며 목사고시에 합격한 감진원, 고명환, 김성수, 김테런스, 배기은, 송승훈, 서제프리, 유스티브, 이강국, 이찬욱, 한중권 전도사에게 합격증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어 공천위원회 보고 및 임원선거, 신구임원회 체, 휘장분배, 신임총회장 취임 인사가 있었으며 권혁천 신임총회장이 김성국 이임총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부총회장 한일철 목사가 단상에 올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광고, 출석위원 선정, 공천위원회 보고, 상비부조직보고, 회록 채택 순으로 진행된 뒤 이재덕 목사(뉴욕남노회) 기도로 정회됐다. 다음은 제48회 KAPC총회를 이끌어갈 임원명단이다. △총회장: 권혁천 목사(북가주), △부총회장: 한일철 목사(동남부), △서기: 김대업 목사(뉴잉글랜드), △부서기: 김요섭 목사(가주), △회록서기: 임수병 목사(필라), △부회록서기: 임동열 목사(뉴욕서), △회계: 서명한 장로(뉴욕남), △부회계: 박정봉 장로(뉴욕)

▲총회 둘째 날 22일(수) 아침 예배는 임영건 목사(뉴욕노회장) 인도로 시작, 최재만 목사(캐나다노회장) 기도, 정의한 목사(뉴잉글랜드노회장) 성경봉독으로 이어졌으며 합신총회장 변세권 목사가 ‘너의 몸이 지금 어디있느냐?(갈 4:1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전총회장 양수철 목사가 축도했다. (10면으로 계속)

전쟁 발발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전쟁



우크라이나에선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됐다. 상황은 더없이 위험해 보이기만 하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이자 러시아와 인접한 국경 지역 하르키우는 공습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하르키우의 한 대형 슈퍼마켓과 원예 쇼핑센터 건물에 러시아 항공 폭탄 2개가 날아들었다.

당시 실내는 사람들로 붐비던 상태였다.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고, 도시 전역에 검은 연기가 퍼지자, 해당 쇼핑센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안드리 쿠데노프의 얼굴엔 절망의 그림자가 더해졌다. “러시아는 모든 것을 불태우

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날씨도 좋고 원예 시즌도 막 시작해서 상점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상점엔 휴, 식물 등이 있었습니다.” 쿠데노프는 휴대전화를 꺼내 공격받기 전 매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는지 보세요. 이곳엔 군인은 없었고, 모두 민간인이었죠.” 이번 공격으로 수십 명이 다치고 최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전히 시신 수습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보통 전쟁이 나도 민간인들은 자신이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보존하고자 노력하곤 한다.

원예 쇼핑센터에서 불이 나는 동안에도 시민들은 반려견을 산책시켰다. 하르키우 중심부 거대한 광장에 자리한 카페들도 공습 사이렌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경보가 울려도 영업을 이어 나갔다. 오페라 극장 건물 계단에선 10대 소년들이 스케이트보드 점프 연습을 하고 있었고, 소년들은 휴대전화로 틱톡에 올릴 춤을 추고 있었다. 오페라 극장 안 깊은 곳에 자리한 콘크리트 지하실에선 전쟁으로도 중단되지 않은 음악 축제를 위해 오케스트라가 한창 리허설을 이어나갔다.

(3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3면 시론 민경연 목사



4면 푸른초장 지용주 목사



8면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1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6th Joint Youth Retreat

Repent, then, and turn to God,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out,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Lord, Acts 3:19

Fresh Fire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불

| 날 짜 | 2024년 6월 17일 (월)-19일 (수)

| 장 소 |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 강 사 | 한사무엘 목사
(전)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사역국 교역자
(현) 말랑 영산신학대학원 담당
(현) ICA 수라바야 교회 부목사

| 대 상 | 청소년 선착순 100명 (2024-25년 학기 기준 6~12학년)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열지 않는 한인 교회의 학생에 한함

| 등록기간 | 6월 7일 (금)까지

| 등록비 | 무료

· 등록문의 ·
www.lafgc.com
나성순복음교회
☎ 323.913.4499
✉ lafgcd@gmail.com

발행인 칼럼

BCD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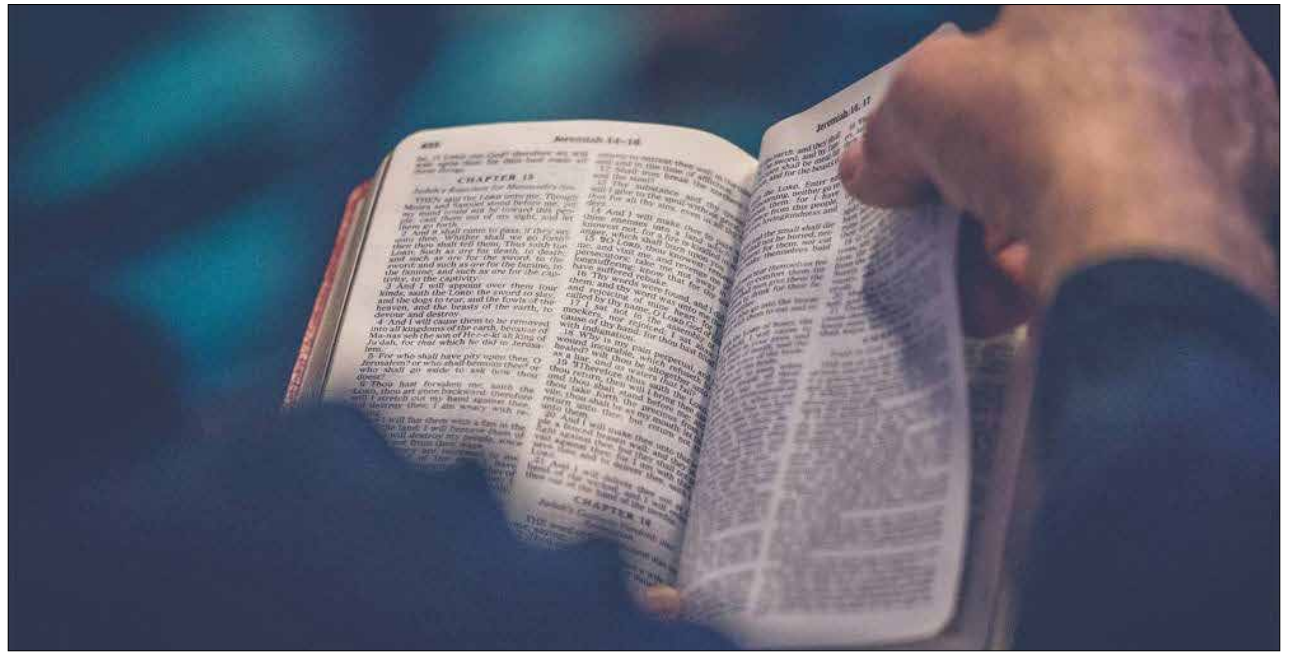
BCD. 그렇다. Birth(출생)와 Death(죽음) 사이에 Choice(선택)가 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빚었듯이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를 만들 것이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도주(逃走) 그리고 거짓을, 그런데 대가(代價)는 너무 크다. 아직도 그 선택의 대가가 어디가 끝일지 헤아리기 어렵다. 지금쯤 온갖 공연장을 찢고 또 찢으면서 팬들의 환호와 돈다발 속에 묻혀 있을 그가, 끊임없는 지탄(指彈) 가운데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서 받을 돈보다 지불해야 할 돈을 계산하고 있는 딱한 신세가 된 것이다. 음주 운전 후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와 은폐(隱蔽)를 선택한 한국의 어느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야기이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수십 년 전의 어느 TV 광고가 아직도 공감된다. 아니, 선택의 결과는 10년 이상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다. 선택은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 동시에 다른 것의 과감한 포기이기도 하다. 결혼 배우자 선택에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 반드시 수십억 명의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의 포기가 있어야 한다. 결혼의 언약과 독신(獨身)의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는 없다. 모세의 위대한 선택에는 앞서 결연(結緣)한 포기가 있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 11:24-25) 그의 선택은 옳았다.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데마의 선택은 달랐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딤후 4:10a) 그는 그런 선택을 했다. 역사(歷史)는 그들의 선택을 오늘도 말한다.

시인 프로스트는 그의 시(詩) "가지 않은 길"에서 이렇게 끝을 맺는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프로스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그렇다. 필자도 지난 선택과 오늘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놀랍다. 그때의 갈림길에서 선택하여 내디뎠던 작은 걸음이 지금은 삶의 장소와 사역의 내용 등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신뢰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우리의 선택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선택은 우리에게 요청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광대한 계획 속에 우리의 선택이라는 방법도 포함해 놓으셨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다. 너는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온다. BCD 가운데 D가 바로 그때이다. Death,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살아생전에 수많은 선택을 자기중심으로 하였으나 죽어서는 그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함을 들려준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BCD 중 C의 시간. 다름 아닌 선택의 시간이다. 똑같은 현실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슬퍼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는 서로 다른 길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며 살리라.

켈러의 설교 시리즈가 나의 사역을 변화시킨 세 가지 방식 "포스트모던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파함"



신학자 고 팀 켈러와 고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공동 강의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그리스도를 설교하다' 시리즈가 리폼드신학교와 복음연합에서 무료 온라인 강좌로 새롭게 출시됐다. 이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큰 도움을 받았다. 십여 년 전 2세대 iPod Shuffle에서 들었던 버전보다 개선되어 나온 이 귀한 자료를 다시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 강좌에서 켈러와 클라우니는 구속사적 설교를 능숙하게 탐구한다. 즉 불신자와 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성경 전체에서 끌어내어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그 접근 방식이 새로운 건 아니다. 켈러와 클라우니가 보여주듯이 구속사적 설교는 성경적이고 또 역사적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파 방법을 이렇게 요약했다. "선포한다. ...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 20:27).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고전 1:23)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관한 자료는 지난 50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1980년대에 들어서는 클라우니가 새로운 세대에게 구속사적 접근 방식을 재도입하는 데 앞장섰고, 켈러가 1990년대와 그 이후 리더십 교회에서 이를 실행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 강좌는 구속사적 접근 방식의 기초 이론과 방법론의 원천이 된

다. 따라서 이번 강좌는 야심 찬 설교자와 경험이 풍부한 설교자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관련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적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강좌에는 내 설교와 동료 목사의 설교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므로 설교를 탐바꿈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켈러와 클라우니는 내가 평소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까지 준다.

이 강좌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막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캔자스의 작은 마을에서 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당시 내 본업은 낮에는 지역 공장의 노동자였는데, 교대 시간이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찾을 수 있는 모든 MP3를 구해서 파고들곤 했다. 그러다가 켈러와 클라우니 강좌를 만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처 몰랐던 성경의 상호 연관성과 통일성을 발견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당시의 관심사가 내 설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켈러와 클라우니의 일련의 강의를 통해 조각조각 흩어졌던 내용이 하나로 합쳐지기 전까지는 아니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 이야기의 통일성과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어 설교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된 후에야 나의 설교가 바뀌었다. 기계를 작동하고 자체가 가득 담긴 트레일러를 내리는 내내 나는 강좌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더 듣고 싶었다.

당시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내용 중 하나가 이번 무료 강좌에 포함된 Q&A 세션이었다.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관해 비슷한 질문을 하는 젊은 설교자가 나뿐만이 아니를 알았다.

• "예수님이 모든 설교의 중심이라면, 모든 설교가 다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 "물론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의 이런 저런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았겠지요. 하지만 여차피 신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러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 성경 해석에 너무 제한을 두는 거 아닐까요?"

켈러와 클라우니는 이러한 질문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포함한) 다른 질문들에 명확하고 우아하게 또 좋은 유머를 섞어 답했다. 나는 특히 오래된 클라우니의 갈비뼈 이야기와 켈러의 대답 중 일부의 코스 수정을 즐겼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복교서리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편적이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제2회 뉴욕 라이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KPCB New York Light Pastoral Mentoring Seminar
일시: 2024년 9월 9일(월)-12일(목)
장소: 베이사이드장로교회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등록문의: 718-229-0858, 646-361-8992 정도영 행정목사
E-mail: nymentoringseminar@gmail.com
대상: 미국과 해외에서 목회하는 목사, 선교사, 강도사, 전도사로써 55세 이하 되는 분(선착순 40명)
주강사: 이종식 목사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PA. (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Jackson, MS. (D.Min. 과정 수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Honorary Ph.D
도미니카공화국 UNEV 대학 교수
미주합동 신학교 총장 역임
CRTS Theological Seminary 분교장 역임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 총회장 역임
캘넷(CAL-NET) 미주대표
도미니카공화국 제자훈련 단체(Siete Ovejas y Un Pastor) 총재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1991~

전쟁 발발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시민들이 아무리 무덤덤하게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약 2년 전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초반 몇 달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이 가려지는 건 아니다. 원에 쇼핑센터 타격은 이곳 북동부 지역과 동부 전선, 헤르손 근처 남부 지역을 노린 러시아 측 공세의 일부일 뿐이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은 외부자들, 특히 서방 동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서방 세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곳 하르키우를 비롯해 약 1000km에 달하는 전선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또 다른 전략적 요인은 바로 전투에서 배우고 적응하는 러시아군의 능력이다.

러시아는 특히 방공 부문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약점을 반영한 공격을 이어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공방들은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발전된 탄약과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전쟁 발발 첫해 만에 러시아를 몰아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기 바

쁜 암울한 투쟁으로 바뀌었다. 이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전쟁 초반만 해도 군대와 영토방위군에 지원하려던 이들이 줄을 이뤘다. 그러나 이 긴 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초반에 지원한 이들이 다수가 사망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청년들을 더 모집하고자 애쓰고 있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 대부분이 중년 남성으로, 이미 지쳐있다.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 군 지도부는 끊임없이 병력을 전진 배치시키는 식으로 군인들의 생명

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넌지시 말한 것만 봐도 우크라이나에선 여전히 엄청난 인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유럽 국가들은 각자 성공한 정도는 다르지만 더 많이 지원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

하면 그래도 달라지는 게 있을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움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힘들 것이며, 11월 미국 대선 전 마지막 지원이 될 것이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다면, 과연 그가 바이트 현 대통령만큼이나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진 알 수 없다.

한편 우크라이나 또한 무인기 전쟁 분야를 개척하며 자력으로 싸움을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폭발물을 실은 무인 선박을 통해 해상 무인기를 날려 러시아 군함을 침몰시키거나 흑해의 곡물 수출 경로를 다시 열기도 했다.

전쟁이 길어지면 상황이 이리저리 기울곤 한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무기를 얻기 전까지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위험한 여름을 보내며 드는 한 가지 큰 의문이 있다. 러시아의 규모, 능력, 집념이 이번 전쟁의 전략적 상황을 바꿀만한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이어질까.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은 러시아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대규모로 써가며 제한된 정도의 영토 확보 이상을 해낼 전투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1년 전 여름을 생각해 보라. 지금의 러시아는 그 때 보다는 더 강해졌고,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더욱더 깊이 진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By Jeremy Bowen, BBC

시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다. 꽃들을 자세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아마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를 읽은 다음일지도 모르겠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무릎을 치며 감탄한 기억이 있다. 그 뒤로는 더욱 꽃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태도가 생겼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꽃들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좋았다. 교회당 앞 정원에 피는 어떤 다년생 꽃은 너무나 작은 꽃들인데 마치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 마치 때로 물려다니

며 군무를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강인한 생명력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건조해서 ‘새들’의 수가 줄어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였는데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와서 요즘은 ‘새들’이 너무 많아 보는 마음조차 즐겁다. 우리 집 마당에 하얀 나리꽃들을 보면서 꽃술을 자세히 살피니까 연한 보랏빛이 마치 수채화처럼 퍼져 있어서 볼 때마다 감탄한다. 꽃들의 마디가 계속 올라오면서 여러 꽃봉오리들이 다 함께 피고 다 함께 진다. 장미와 같은 정원의 여왕 같은 꽃들을 보면서 향기를 맡는 것도 좋지만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아주 작은 꽃들을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마치 꽃들이 자기 좀 보아달라고 응석을 부리는 것처럼 여겨져 사랑스럽다.

사실 자세히 보고 싶은 것이 꽃만이 아니었다. 서재에 앉아 있으면 나무들 몇 그루가 보인다. 그 나무들에 가끔 새들이 날아와 앉는다. 그들의 하는 짓이 재미있어서 자세히 살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망원경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오래 생각하였는데 섣달 사기도 뭐하여 망설였다. 올해 생일 때 큰 아이가 물길래 “망원경”을 주저하지 않고 외쳐더니 생애 처음 가져보는 조그마한 망원경을 사주었다. 별새는 내가 아는 가장 작은 새인데 가끔 날아와 요란스럽게 날개를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이 앙증맞다. 그런 모습들을 망원경으로 보니까 실제로 그들의 날갯짓은 엄청나다. 망원경을 조절 맞추는 사이에 이미 다른 데로 날아가는 별새를 관찰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날개로 난다기보다는 펄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은 별새를 자세히 관찰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지난주에는 망원경 가진 덕을 단단히 보았다. 신학교 동문들과 창조과 학탐사여행을 다녀왔다. 창조론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을 살폈다. 오래전 다녀온 곳들이지만 강사의 설명을 듣고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더욱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비롭게 여겨졌다. 한국인들의 버킷 리스트 1위라는 웅장하고 아마도 깊은 계곡의 그랜드캐년, 무리를 지어 가만히 서 있는 미어캐처럼 생긴 화려한 여성미 넘치는 브라이스캐년, 너무나 거대한 바위들로 보는 이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남שמ미 가득한 자이온캐년을 망원경으로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듯하여 감탄이 절로 나왔다.

긴 시간 동문들과 여행을 하면서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는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사역할 건지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개중에는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이들조차 있었다. 저마다 자기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을 때 긴 세월의 무게감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까마득한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시절 나의 사역에 대한 열정과 몸부림도 기억이 났다. 신학교 동문들이니 서로 모르는 처지는 아니었으나 자세히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사랑스러운 마음에 마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내 삶을 살기에 바빠서 나만 잘난 줄 알기도 하였고, 나만 빠빠지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동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보다 더 고생하고, 더 열심히 사는 이들이 많은 것에 마음이 낮아지기도 하였다. 동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마다 소중함이 새삼 다가왔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뜻 볼 때는 그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망원경으로 자세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측면이 있고 사랑스러운 구석이 느껴질 것이다. 자세히 보면 불쌍하지 않은 교인이 없다. 자세히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교인도 없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대중 보고 함부로 판단하기를 거듭했는가.

minkyungyob@gmail.com

켈리의 설교 시리즈가 나의 사역을 변화시킨 세 가지 방식

(2면에서 계속)

켈리는 자신의 멘토인 클라우니의 의견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항상 그가 말하는 포인트를 인정했다. 그들이 보여주는 개인적인 상호 협업은 그 자체로 값어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2. 켈리와 클라우니는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던 귀한 자료를 알려준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점점 내 속에서 설득력을 가져 갔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강의는 그 방향을 제시했다. 켈리는 태연하게 말한다. “D. A. 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켈리가 언급한 참고 자료를 적는다. “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레이다누

스(Greidanus)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또 하나의 읽어야 할 자료가 생긴다.

나는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책장에서 꺼낸 많은 책이 사실상 켈리와 클라우니의 추천으로 구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소개하는 이번 강의의 필수 및 권장 독서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사역은 정말 풍성해질 것이다.

3. 켈리와 클라우니에게는 내가 배워야 하는 경험이 풍부하다.

많은 기술과 마찬가지로 설교도 ‘가르치는’ 것보다는 ‘깨닫게 하는’ 부분과 관련이 크다. 내 설교는 켈리 또는 클라우니의 설교 형태와는 다르다. 모든 설교자가 다 다르고,

심지어 켈리와 클라우니도 서로 다른 형태의 설교를 한다.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스타일을 복제하는 클론 목회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이 바란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모든 사역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통찰력의 제공이었다.

놀라운 맥락

수년 동안 나는 쿠바에서 매일 라디오 방송과 섬 전역에서 열리는 설교 세미나를 통해 봉사했다. 내가 진행한 세미나의 기초는 클라우니가 강의에서 설명했던,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클라우니 삼각형”이었다. (쿠바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설교에 적용함으로 이동하는 이 방법을 야구 다이아몬드로,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야구”라고 불렀다.)

아바나 외곽에 있는 나사렛 신학교에서 세미나를 마친 후, 한 현지 목사가 다가오더니 나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목사로 사역한 지 이십 년이 넘었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방법을 나에게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지금 소개하는 강의의 유산이 맨해튼 교회 개척이나 개혁 신학교 캠퍼스를 훨씬 뛰어넘어 바다 건너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예수님을 나의 설교에 넣었고, 이 쿠바 목사의 설교에도 예수님을 심었다. 이번 강제가 제출시됨에 따라서 더욱 놀라운 곳에서 구속 사적 방법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By Dan Warne, TGC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소중한 존재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창조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

기전, 먼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우리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창조 후에 하나님의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들을 낳은 아이를 낳습니다. 자녀안에 부모의 형상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이고, 짐승들과 달리 도덕적인 존재이며,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독창적인 존재,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와 손가락 지문이 똑같은 사람도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왜 지문이 필요할까요?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창조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 지문이 없으면 종이같이 매끄럽고 얇은 물건들을 집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요모하고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손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

다." (시 139:13-14 현대인)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복된 가정의 축복을 누리 기 위해 몇 가지를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족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 심히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우리가족 하나, 하나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서로 서로를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모두를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서로를 향해 "보기 심히 좋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걸작이다."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가족들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대에 어긋났다고 분노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거슬러도 반항하

지 마세요.

배우자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바가지질 끊지 마세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받치 하지 마세요. 서로를 향해 오래 참으세요.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세요. 나에게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가족 모두를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서로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보기 심히 좋았더라"하신 기쁨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됩시다.

푸/른/초/장

지용주 목사
(시라쿠스 한인교회)



한 지역 선교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선교사를 지망하는 분은 새벽 4시까지 사무실로 오십시오." 당일 되자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선교부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한두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대부분 불평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오전 8시가 되어서야 열렸습니다. 그것도 조금 열린 문틈으로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며 남아있던 몇몇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느냐?",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냐?", "아침에 해는 어디서 뜨느냐?",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야?" 등의 질문을 던진 후 "오늘 시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돌아가서 기다리십시오" 하더군요. 며칠 후 한 선교사 지망생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신이 새벽 4시 정각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까지 기다리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불평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 보았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고, 인내해야 하며, 순종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를 이룬 과정을 보면, 때때로 까다로운 일들, 신경질 나는 일들, 수긍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놀라운 일을 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인내가 그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옛새 동안 매일 여리고 성을 한바퀴씩 도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칠일에는 일곱 번을 돌았습니다. 매일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그들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상상적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

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시끄러우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내가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출 14:13). 지금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시 20:7).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을 때, 태양도 멈추게 하였(수 10:12-13), 다윗은 믿음으로써 골리앗을 돌맹이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삼상 17:40-51).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당시 최고 강대국 앗수르를 물리쳤습니다(왕하 19:14-37). 이처럼 인간의 어떤 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군대로 주위를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 곧 그 인자 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시 33:16-20)라고 말합니다.

서 역사해 주십니다.

3. 주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라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성벽 주위를 돌던 첫째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날까지 13번을 모두 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앉아 기다리라"(시 37:7)고 하십니다. 우리

것처럼 간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로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침묵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16)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승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쟁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승리의 진짜 주역은 여호와 하나님 한분입니다. 여호수아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나 믿음이 여리고 성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때" - 창세기 15:16)에 이루실 것을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여리고성의 기적을 이룬 것이며,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어주었던 이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에 실패하여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따르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때때로 용기있는 사람도 실패하는데, 이는 그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기사는 주님 뜻대로만 따르면 어떤 장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 예로 꼽힙니다. 어떤 위함이 닦쳐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께 순종할 때 절충성 같은 장애, 문제, 어려움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하게만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 함락한 것은 오직 백성들이 아무 불평 없이 침묵의 행진을 7일간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그러한 순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하거나, 그 순종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여리고 성

여호수아 6:1-21

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 침묵하라

10절을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작전은 눈을 법계로 고정시키고, 귀는 나팔소리를 향해 열어 두고, 입은 침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팔소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유롭게 말하며 성을 돌았다면 대부분이 나팔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면서 '이런 전쟁이 어디 있지? 우리가 산책하러 온 건가? 백편 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등등 온갖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목소리를 줄여야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잡음이 없도록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망도, 불평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계만 바라보며 '앞으로' 진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침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침묵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A. W. 토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침묵을 배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 속에 우리의 살 길도 있습니다. 절망을 헤치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 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여리고 성벽을 침묵하며 도는 일 밖에는 없었습니다. 유치하고 우스운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지정해 주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생각에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이냐 무기 대신 성 주위를 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어떤 무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전투는 칼, 창, 화살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 누구도 당해낼

순종은 축복을 받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렘 7:23).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한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였고, 하인들이 물을 항아에 잘 때까지 갖다 부었더니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을 갖다 부었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유명 신학자 분회퍼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도, 헌신도, 충성도 완성됩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

는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여리고를 한 두번 돌았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점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야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세도 이에 실패하여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따르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때때로 용기있는 사람도 실패하는데, 이는 그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기사는 주님 뜻대로만 따르면 어떤 장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 예로 꼽힙니다. 어떤 위함이 닦쳐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께 순종할 때 절충성 같은 장애, 문제, 어려움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하게만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 함락한 것은 오직 백성들이 아무 불평 없이 침묵의 행진을 7일간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그러한 순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하거나, 그 순종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승리를 주신

workmanAyeshua@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계속되는 “선 과 악”의 치열한 전쟁!

캘리포니아 LGBTQ Caucus(간부의회) 에서 또다시 “학부모 통지 금지 정책” 법안 발의



SAFETY Act.

AB-1955를 반대 할 이유들... (위사진: AB1955 발의자 - 민주당 동성애 의회의 부대표)

AB-1955 는 크리스토퍼 워드 하원의원과 LGBTQ 의회 (CA- 민주당)가 위에 설명한 10개 학군에서 시행한 학부모 통지 정책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번 주에 내놓은 법안입니다.

“SAFETY” -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 한다는 포장을 한 법안이지만 전혀 반대임.

학교 교사가 원하던 아니던,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을 갖겠다는 학생의 새로운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게 숨기도록 강제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AB-1955를 발의하고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이 법안이, 태어난 성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그들의 자녀들 사생활의 안전을 정부가 보호할 수 있다고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함. (또 다른 차원의 kidnapping bill)

AB-1955의 위험성 과 Concerns: (위사진: 장소: 샌디에고 - CA LGBTQ Caucus 5/22일 AB1955를 Safety Act 로 지지 요청)

부모의 권리 금지, 가족관계 붕괴 초래: AB 1955는 부모를 소외시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하며, 학부모가 자녀들의 정체성 변화를 알아야 할 권리를 “금지 ban” 하는 것은 결국 가족 관계 붕괴를 초래

교사-학생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도록 강요

교육자는 학부모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을 안전하고 모든 학생을 양육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AB1955는 그 반대로 특정학생/학부모/교사들만 확장 보호, 혜택을 주는 것이 됨.

교사의 권리까지 위협 - 정부가 학부모

모와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 선택권을 빼앗고, 정부가 원하는 것만 교사로 하여금 가르치게 함. 더 이상 “건강한 교육” 이 아닌 “세뇌교육” 임.

학부모의 권리가 보호 되어야 하는 주요 이유들 몇가지:

헌법적 권리: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포함하여 자녀의 삶에 관여할 모든 책임과 헌법적 권리가 있다.

얼마 전 Mirabelli v. Olson 을 받았던 미연방 판사인 베네티즈(Judge Roger Benetiz) 판사는 부모가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함. 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자녀의 복지에 대한 중요한 측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 특별히 학부모의 권리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의 이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며, 베네티즈 판사는 “부모의 자녀보호권, 양육권, 통제권, 자녀의 의료 서비스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모의 권리는 미국인이 누리는 가장 오래된 기본적 자유의 이익 중 하나로서, 학부모들에게는 충분히 누리고 살 권리가 있다. A parent's right to make decisions concerning the care, custody, control, and medical care of their children is one of the oldest of the fundamental liberty interests that Americans to enjoy.” 라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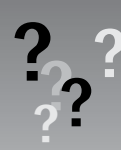
법적 판례: 법원은 부모의 권리를 확인하는 여러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며 아래와 같은 판례들을 들어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에 손을 들어줌.

Troxel . Granville and Parham v. J.R. v. 같은 판례들은 부모가 자녀양육과 교육을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AB 1955의 요구 사항은 이러한 확립된 법적 판례와 완전히 상충됨.

공립교육은 어떤 정부의 지배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족 관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잠재적으로 자녀의 복지에 해를 끼칠 수도 있으므로 학부모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는 절대로 안됨. 이러한 정책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가 양심에 반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교사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미국의 주류 기독교 교단 교회들이 신학적 좌경화가 되므로 보수적인 교회들이 탈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 실미에서 이희은

동성애

A: 동성애 문제는 현대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타락 이후로 동성애는 역사 속에 계속 있어왔습니다. 첫째, 동성애의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 가운데 살던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는 동성애를 포함한 온갖 성적 무질서가 성행했습니다. 가나안 종교의식에도 신전 남창(male cult prostitute) 사이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동성애가 일반적으로 행해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소돔사람들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천사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내어 놓도록 요구한 창 19장 5-9절의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NIV에는 19:5절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즉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남자의 모습을 가진 천사들과 동성애를 가지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동성애적인 것이었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은 동성애를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접함 같이 남자와 교접하지 말라. 이는 가증함이라.”고 강하게 말하는데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히브리어 토에바는 토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공적인 사형을 언급할 만큼 삶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22장 5절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런 규명에는 적어도 창조 때 주어진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을 모호하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신약성경의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신약에서는 동성애적인 행위를 자연방식을 벗어난 부자연스러운 것, 즉 자연에 역행하는 기능 즉 창조자의 의도에 반하는 기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 관계를 부자연스럽고(unnatural) 왜곡된(perversion)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전 6장 9절의 탐색하는 자 (male prostitutes, 헬라어 말라코이)와 남색하는 자 (Homosexual Offenders, 헬라어 아르세노코이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라코이는 만지기에 부드러운, 남자답지 않음(Unmanly)을 뜻하는 말로서 의식적으로 여성의 스타일이나 방식을 모방하는 젊은이란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헬라인들 사이에 동성애적 성교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아르세노코이타(남자와 함께 눕는 이란 뜻)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침대 속의 남자라는 의미인데 동성애적 행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쪽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단어는 모두 남성 동성애자 중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편과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편에 대한 지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성애를 아주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단과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성경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세례기도: 오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5:45 Tel: (718) 26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청년예배: 오전 08:45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5:30 세례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www.ikbc.org 14 Grassla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갯세마니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 (월-토) Tel: (516) 202-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6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718)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 1부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 (718) 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 (월-금) / 6:00 (토) Tel: (516) 387-9940, 9942E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 706-0100, www.nyo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전 1:30 세례기도: 오전 5:55 (월-토) Tel: (718) 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08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강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양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 오전 5:45 전교인특별사역예배: 매 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9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11:00 주일 3부 오전 1:30 청년예배 오후 3:45 세례기도: 매월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ongsunwon@yah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917) 733-7387, sb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 (월-토) 오전 6:00 Tel: (845) 359-1458, http://onuri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93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선교!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개혁: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 (화-토) Tel: (808) 855-1859 1130 N. Linn St Hwy C-100 Honolulu HI 96817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n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laza, 281 Curitiba S.Paulo Cep 01528-010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 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배로운교회)

“교회의 종교화를 막으십시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외적인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많이 활동하고 봉사하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둡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활동과 봉사 이전에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둡니다. 둘째는 종교는 깊은 명상과

뼈를 깎는듯한 철저한 수양 생활을 통해서 심오한 도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깊은 명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귀기를 추구 합니다. 종교의 깊은 명상은 분명한 대상이 없습니다. 예나하면 종교는 모두 가짜 신

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짜 신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행하는 깊은 명상에는 분명한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행하는 뼈를 깎는듯한 철저한 수양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 죽임 당하는 삶을 강조 합니다. 종교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수양생활을 잘 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수양생활을 잘 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종교는 내가 흥하여지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지상의 교회들안에는 참된 기독교 신앙과 종교적인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 교회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교회내에서 종교적

인 요소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 교회는 점점 종교화 되어갑니다. 점점 종교화 되어가는 교회가 세상에서는 많은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터는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부터는 박수 갈채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터는 외면을 받는 교회는 그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 하여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더욱 종교화 되어갈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거룩한 긴장감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모인 사람들을 소그룹 단위로 지역별로 파송하여서 교회를 계속 개척토록 하여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비전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대사명을 보다 효율적이고,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공격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 특정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것으로 부흥의 화제 거리로 삼는 것은 수준보다는 모인 사람들을 파송하여서 개척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으로 부흥의 화제 거리로 삼아서 세상도 감동케 하는 높은 수준의 교회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출 해야할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만이 아닙니다. 점점 종교화 되어가는 위험에 처한 교회들도 구출해야 합니다. 점점 종교화 되어가는 교회들을 구출해낼 가장 확실한 길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줄기차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성도들이 그들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종교적인 요소들은 순식간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신성모독 의심에 기독교인 집 '하르륵' ... 파키스탄 종교박해 현주소

파키스탄 동부지역 편자브주에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정황만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집단 폭행하고 화재를 일으켜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기독교 박해 행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파키스탄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2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파키스탄 동부 경찰은 이슬람 경전 '쿠란'을 모독했다는 정황만으로 기독교 가정을 폭행한 무슬림 100여명을 체포하고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앞서 지난 25일 발생했다. 현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지역 무슬림들은 '기독교인 가정집 밖에서 불에 탄 쿠란의 페이지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슬림들은 배후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인 2가정의 10여명을 집단 폭행했고, 이들의 집과 신발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누를 울아민 뱀갈 편자브주 내무부 장관은 "파키스탄에서 종교를 가장한 불의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성명서를 내고 파키스탄 내 기독교 박해 확대 방지를 호소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성명을 통해 "폭도들의 폭력은 개인이 쿠란을 모독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촉발됐다"며 "이에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혼란 속에서 피난처를 찾아 도망쳤다"고 전했다. 필레이 총무는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파키스탄의 가혹한 신성모독법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는 종교적 소수자를 박해하거나 개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자브주 정부 및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에 (기독교 박해 관련) 폭력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를 호소한다"며 "피해를 입은 가족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도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도 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 7위로 나타났다. 무슬림이 약 97%에 달하는 파키스탄에는 신성모독 관련법이 있어 이슬람 신성모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한다. 다만 신성모독 혐의가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용의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미 기독교인 10명중 7명... '교도소 재소자'에 편지쓰고파

미국 개신교인 대부분이 교도소 재소자와 재소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정 사역에 나서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미 개신교인 1006명

을 조사해 지난 16일 발표한 결과, 미 개신교인 4명 중 3명(75%)은 교회가 교정 사역에 힘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정 사역 경험이 있는 기독교인은 4명 중 1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95%며 오차범위는 ±3.2% 포인트다. 미 기독교인은 다양한 교정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는 사역'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매우 관심 있음 22%·관심 있음 25%·조금 관심 있음 21%)이며 '교도소에 직접 방문해 일대일 양육에 나서'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51%(매우 관심 있음 16%·관심 있음 17%·조금 관심 있음 18%)에 달한다.

한편 직접 사역에 나선 이들의 비율은 비교적 낮다.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본 기독교인의 비율은 5명 중 2명(18%)이다. '교회에서 관련 행사를 열었지만 참가하지 않음'(14%) '교회가 아닌 곳에서 관련 행사를 열었으나 참가하지 않음'(15%) '관련 경험 없음'(53%) 순이다. 교도소에 직접 방문해 일대일 양육에 나섰다는 이들의 비율은 10명 중 1명(11%)이다. '교회에서 관련 행사를 열었지만 참가하지 않음'(17%) '교회가 아닌 곳에서 관련 행사를 열었으나 참가하지 않음'(15%) '관련 경험 없음'(56%)이 뒤따랐다.

미 휘튼 칼리지 빌리 그레이엄 센터의 카렌 스완슨 교정부 연구소 소장은 "이 연구는 교도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견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교회는 교인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권유했다.

2000년 전 예수가 '수어(手語)'로 말한다면 이런 모습?

식탁에 앉은 예수님이 열 두 제자 앞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가시 면류관을 쓴 채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군중들이 "십자가에 매 달으라"며 소리친다.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한 장면들을 생동감 있게 구현해낸 영화의 일부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출연자들의 대사가 '들리는' 대신 '보인다'는 것이다.



다음 달 20일 미국 개봉을 앞둔 영화 '지저스(Jesus)'(감독 조셉 조슬린)는 세계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수어 연기로 담아낸 장편 영화다. 청각 장애인 사역 단체인 '데프 미션(Deaf mission)'이 미국 수어(ASL)로 영화를 제작한 것이다.

이번 영화에서는 주연을 맡은 청각 장애인 배우 기드온 필을 비롯해 모든 배우들이 수어로 연기를 펼친다.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장면들은 일반적으로 '영화'하면 떠올리는 음성 대사 없이 수어와 자막, 사운드 트랙으로 채워져 있다. 웅장하게 묘사한 성경 속 배경과 상황, 기존의 기독교 영화들 못지않은 배우들의 열연이 수어와 어우러지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크리스천인 배우 필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오롯이 표현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기에 임했다"고 밝혔다.

작품의 출발점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조슬린 감독은 "2006년에 처음 데프 미션의 회원이 됐을 때 당시에는 수어 영화 제작에 필요한 기술, 제작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 바로 제작에 착수할 수 없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영화들을 볼 때마다 '만약 이 영화들이 수어로 돼 있다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늘 품어왔다"고 회상했다.

이 작품의 영화화 개봉은 제작 과정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성과이기도 하다. 조슬린 감독은 "이번 작품이 교회나 지역의 사회복지 센터에서 상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있었지만 영화관에서 개봉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선교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자 비기독교인 청각 장애인들을 초대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영화 '지저스'는 시대적 상황 속 예수님이 보여 준 기적과 그 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교훈 등 성경의 주요 장면들이 조명된다. 조슬린 감독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어떤 측면을 집중해 표현할 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관객들이 죄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의 핵심이었음을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엄마가 잊지 않은 유일한 기억은 예수님!"

치매 말기로 모든 것을 잊은, 90세에 가까운 할머니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이 감동했다. 주인공은 'littlerebel40'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여성 네티즌의 모친이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말 SNS 틱톡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1분짜리 영상을 공유했다(사진). 1000만회 재생수, 2만5000개 댓글이 달린 영상에는 88세 어머니가 온전치 않은 기억에도 신앙을 잃지 않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성은 어머니에게 집 주소나 자녀의 이름을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모르겠다"는 말뿐이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셨나"는 질문에 어머니는 "음식"이라고 답하며 멍쩍은 듯 웃었다. 무기력하고 심드렁한 반응은 여성이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물음에서 확 달라졌다. 어머니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제 마음속에 사시는 분이요. 저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자녀나 손자녀 간증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말이 황실수설할 정도로 치매가 심한 할머니의 기도는 너무 완벽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치매인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늘 하신 말씀은 예수님뿐"이라고 떠올렸다.

AI 열풍에 IT업계 인력 재편... 노동시장 불균형도

미국에서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라 이 분야로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탓에 구직자들이 채용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AI 열풍으로 IT 부문 노동 시장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인력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생성형 AI의 기반인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에 지식이 있거나 작업 경험이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

지만, 해당 업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구직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IT 업계에는 해고 바람이 불었다. 회사의 자원이 AI 관련 부서로 집중되면서 남은 이들은 조직 개편이나 감원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업계 종사자들은 AI에 초점을 맞춰 이력서를 다시 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

지난 3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아시프 다니니(31)는 AI 능력 위주로 이력서를 새로 작성해 구직에 나섰다. 2016년 이전에 LLM을 다루본 경험이 있지만 최신 기술을 다루기엔 역량이 부족해 AI 제품 매니저 채용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다고 한다. 결국 다니니는 6800달러(929만 원)를 내고 AI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딥 아틀라스'의 강좌를 수강하기로 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회사에서 10년간 영업관리직으로 일한 A씨도 정력해고를 당하고 올해 초 오픈AI와 엔트로픽에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는 "영업 분야에서도 AI 관련 역량이 있어야만 입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의 2024 워크트렌드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링크드인 프로필에 챗GPT 등의 기술을 추가한 회원 수가 전년 대비 14% 늘었다. IT 분야 종사자들이 기술 향상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커졌다"며 "이들은 자신이 현재 하는 일이 쓸모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런 자리는 해당 업무를 할 줄 알면서 AI까지 잘 아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테크 기업들 내부에서도 전체 인력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교육 플랫폼인 트릴리헤드를 통해 AI의 기초부터 윤리적 사용에 이르기까지 43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6만명이 넘는 이 회사 직원들은 최소 1개 이상의 AI 강좌를 수강했다.

러시아와 인접한 나토 6개국, 국경에 '드론 장벽' 세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와 인접한 6개국이 국경에 '드론(무인기) 장벽' 구축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사용과 전자전 등 '하이브리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향후 5~10년 안에 새로운 국경 도발을 단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들 6개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에서는 친서방 성향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나토 회원국인 핀란드와 노르웨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러시아로부터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드론 장벽' 구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6개국은 러시아 본토나 영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맞댄 나토의 최전방 국가들이다. '70년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지난해 4월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의 경우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이 1340km에 달한다.

아그네 빌로타이트 리투아니아 내무장관은 "노르웨이에서 폴란드까지 구축될 드론 장벽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비우호적 국가들(러시아·벨라루스)의 도발에 맞서고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드론 등의 기술로 국경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 란타넨 핀란드 내무장관은 자국 공영방송 위엘레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드론 장벽의 성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앙칼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Jesus, Lord of the Sabbath)

안식일(Sabbath)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는 것을 참으면서 밭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마 12:2)며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까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비벼 먹은 것을 타작과 추수에 해당하는 행위로 확대해석을 한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이 정해 놓은 안식일 규례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지 규례들이 있었습니까. 가령 안식일에는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일, 곡식 단 묶는 일, 타작, 곡식을 까부는 기질을, 곡식을 고르는 일들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을 추수에 해당되는 일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해 놓은 유전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허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마 15:3)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순한 항의에 대해 2가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삼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다윗과 제사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마 12:3,4)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놉 지방으로 도망을 갈 때입니다. 다윗이 석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자들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고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허기진 다윗과 신하들에게도 이 떡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일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말씀하시며 괜히 생사람 잡으려고 생트집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두 번째 역사적인 사실은 "만일 너희 말처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마 12:5)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3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율법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Law is Not Condemnation, but Love)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정신은 '율법은 정죄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마 12:7) 율법의 근본정신은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먼저 사랑 하는데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총망라해서 율법의 근본정신이 사랑입니다. 율법을 함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정신도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는 그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근본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썼습니다. 율법의 근본정신을 잊어버리고 겉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종교인이라 수치입니다. 율법의 근본정신을 정죄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보다 자비가 먼저다.(Mercy Comes before Sacrifice)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마 12:7). (호 6:6)는 이 말씀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에 없는 제사에 앞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비의 마음 때문입니다. 만일 자비보다 마음에 없는 제사를 우선한다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한 주간 내내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던 말건, 다음 안식일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배가 고프서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를 내세워 정죄하다니 잘못된 것입니다.(마 12:1,2) 우리는 마음에 없는 제사에 앞서 자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방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Rest is in Jesus Christ)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2:8) 이 선언은 모든 인류를 안식일 규례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안식일 규례를 보면 39가지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온통 해서는 안 될 규례들로 엮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지키려면 안식일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쉬라는 안식일의 노예가 되다니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먼저 여러분이 사람을 위해서입니다.(막 2:27)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얽어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안식일에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안식일 제



차용호 목사 (선바리안장로교회)

도를 제정하신 예수님까지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신성불가침이라도 됩니까? 구약시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지금은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시므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요, 주일은 재창조 기념일입니다. 주일은 생명의 날, 자유의 날, 해방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기쁘고 즐겁게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기쁘니까? 짐이 됩니까? 짐이 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 근본정신을 잊어버리고 겉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 11:28-30)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9) 장한 어머니상

결손가정(broken family)에 대한 표준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미성년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 원만한 가정이란 어려움에 극복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가정이라고 편견적 시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남아아이들의 경우 아빠의 도움없이 키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아들들을 교회 중심으로 키운 다섯 분의 어머니들께 어떤 한인은행에서 지급해 주신 발전기금으로 장한 어머니상을 수여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싱글 아버지 혹은 어머니들 중에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엄마와 함께 우리 모임에서 진행한 캠프이나 수양회에 참석하여 예배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기에 가족이상의 끈끈한 성과 관심이 쌓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기에 들면서 계속해서 참석하지 못할 때라도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성장했기에 이번 시상식을 앞두고 더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 반 이상이 이번 여름에 단기선교를 떠날 뿐 아니라 신학대학으로 갈 것을 고려한다 하니 더욱 감사했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려웠던 때와 기뻐할 때에 대해 돌아가면서 나누자고 했을 때 한 어머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던 아들이, 예민한 심대에 들어서었을 때, 아빠도 엄마도 재혼하는 환경에 처하게 돼서인지 교회는 물론 학교 다니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주말을 이용한 우리 단체의 수양회에 엄마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일 오전, 해산 후에 엄마가 나가던 교회를 가게되고 그곳 고등부 예배에서 전도사님과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되어 현재까지 삼년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세 아들을 기르고 있는 한 어머니가 나누는 내용입니다. 한국으로 떠난 애들아빠는 양육비는 커녕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일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연장자학을 하느라 많이 긴장되고 바쁜 삶을 살며 아들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늘 순종만 하던 큰아들이 엄마에게 대꾸하며 머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졌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둘만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울며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더 친근한 모자가 될 수 있었다고 했을 때 참석자 모두의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의 감동적인 간증이 있을 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대학으로 떠나 엄마의 눈을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해 나가도록 결고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번 일을 통해 굳게 된 생각이 결손가정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완전이 아닌 완전한 가정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 14:26)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부모 인도자들에게서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하며 염려하는 한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빠가 혹은 엄마가 되어 주실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며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전역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6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전역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gcusa@yahoo.com / www.lagc.com Tel: (323) 3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단교회</p> <p>담임목사: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한국전역예배: 오후 7:00 영어예배: 오후 7:30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714) 719-2244, www.dhp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미주양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 381-2202, www.mjp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ehel@hkc.org / www.hk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사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저녁 7: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c.org /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3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p-F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참구예배: 오후 6:30</p> <p>Tel: (310) 749-4766 실비치 리저널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F)</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 737-3008, Ce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윤송 목사 (LA복음선교회(복음선교회)총무)</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성신도 여성 리더 3. 목회자 4. 가정사역 5. 사별사역 6. 네트워킹사역</p> <p>Tel: (213) 700-9828, www.elpis.org 1200 W.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714) 446-6202, www.graec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p> <p>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 749-4500, www.g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등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평강교회</p> <p>담임목사: 송금관</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통영로성심(유망):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새벽 2:00-3:3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E-성경을 읽는(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ngg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여병연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영적 바이러스

얼마전 사용하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모든 프로그램을 지우고 새로이 설치해야 했습니다. 방호벽을 설치

하라는 싸인이 계속 뜨는데도 경비를 아끼려 무시하고 사용하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백업을 해놓지 않은 일부 중요

한 자료를 잃어버렸습니다. 강력한 방호벽을 설치했다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방심하다 바이러스의 공격에 뚫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이 튼튼한 방호벽을 설치했지만 밤낮 가리지 않고 바이러스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사탄이라는 강력한 영적 바이러스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탄 바이러스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공격을 잘 방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적과의 싸움을 위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무장된 성도라면 방호벽이 철두철미한 컴퓨터처럼 우리는 결코 공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 잠을 자고 있거나 성령에 민감하지 않은 성도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코가 꺾여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주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마 26:41)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방심의 영적 바이러스를 계속 심어 놓고 다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도와 말씀의 방호벽을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욕은 지금 자기 자신이 현재 말로 현연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담고 있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욥 27:1-6) 호흡이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회생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서 감히 자기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은 하나님

께서 자신들을 능히 구원하실 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방호벽인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집이니라”(딤후 4:5) 말씀합니다. cefyeo@hanmail.net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준비위원들이 모임을 가진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참가팀 전체 모임 가져

“교회와 교계의 화합과 하나님을 높이는 합창제 되기를 소망해”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20일(월) 오전 11시 30분에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북경중식당에서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OC지역 교회와 교계의 화합과 일치, 성가를 통한 교회 네트워크를 다지는 성공적인 합창제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모임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를 비롯해 참여교회 지휘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6월 2일 진행에 대해 의논하고, 각 연주팀의 요구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말에서 신용 회장은 “하

나님을 높여드리는 합창제가 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홍보위원장을 맡은 윤우경 전 이사장은 “올해 행사를 내년과 그 이후의 행사를 이끄는 건 인사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이번 합창제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기대감과 호응을 부탁했다. 준비모임은 김미선 음악감독(서부열린문교회 지휘자)의 진행으로 김상기 목사(위트컴여성합창단 지휘자)의 기도로 시작해 김구삼 목사(LW한인커뮤니티교회 음악감독)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합창제 참가팀으로는 감사한인교회, 남가주동신교회 여성콰이어, 남가주사랑의교회, 엘바인새생명한인교회, 엘바인침례교회, 은혜한인교회, LW한인커뮤니티교회, Orange Mission Choir, 위트컴여성합창단이며, Kairos Singers가 특별출연한다.

이번 합창제의 수익금은 제5차 선교사자녀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합회는 4회에 걸쳐 177명의 선교사자녀들에게 88,500불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합창제 및 광고후원문의: 562-399-2022(신용 회장), 213-500-5449(윤우경 홍보위원장)

연합회는 매월 정기 조찬기도회와 상반기, 하반기 주요 행사를 진행하며 평신도 기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신앙회복과 올바른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OC인근지역의 평신도라면 교회나 교단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유튜브 채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미주합동 제45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신앙이 삶이 되는 총회’ ...미주합동 제45회 정기총회

총회장 최순길 목사, 부총회장 하재식 목사, 박영근 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 총회(총회장 오정길 목사) 제45회 정기총회가 ‘신앙이 삶이 되는 총회(고전 13:1-3)’라는 주제로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에서 열려 최순길 목사가 신임총회장으로, 부총회장

은 하재식 목사와 박영근 장로가 추대됐다.

오정길 총회장 사회와 회개이중회 목사 개회기도로 열린 총회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임원선거, 신규임원교체, 공포패 전달, 고퇴연계 신임총회장 인사, 회의록 보고 및

채택, 회계 감사보고, 회계보고, 노회 헌의안 및 청원서 보고, 제44회 각 노회 보고, 총회 상비부 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총회는 최순길 총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마쳤다.

한편 서기 지윤성 목사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박영근 장로가 기도, 부회계 윤석재 목사 기도, 오정길 목사가 ‘신앙이 삶이 되는 총회(고전 13:1-3)’라는 제목의 설교, 하재식 목사 성찬예식 인도로 이어졌으며 증경총회장 오병우 목사가 축도했다.

△총회장: 최순길 목사 △부총회장: 하재식 목사, 박영근 장로 △서기: 전병노 목사 △부서기: 장동익 목사 △회의록서기: 김경렬 목사 △부회의록서기: 윤석재 목사 △회계: 이종희 목사 △부회계: 최다윗 목사 △총무: 임영오 목사 (박준호 기자)



미주대학생 모국초청 섬머캠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올 여름, 미주대학생 모국초청 섬머캠프 연다

“이민사회 젊은 세대들에게 뜻 깊은 캠프 될 것”

미주대학생 모국초청 섬머캠프가 7월29일(월)부터 8월16일(금)까지 한국 당진동일교회 교육관에서 열린다. ‘Camp Firelight! A Summer Camp Adventure with God’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국가 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을 헐고(엡 2:12-22) 모국 문화를 이해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미 있는 사역을 오래했다. 특별히 이민사회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귀한 자리를 제공하는 뜻 깊은 캠프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캠프는 미국 및 영국에서 한국계 대학생들이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교류와 교류와 경복궁, 휴전선 방문 등을 비롯한 각종 야외 활동과 새벽기도회와 철야기도회 등 한국교회 문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당진동일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순수 용돈을 모아 항공료를 마련했으며 부족한 부분과 나머지 체류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당진동일교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수훈 목사는 “당진에 이혼 가정의 생기면서 아이들만 시

골로 내려오게 되었다. 조손 가정(조부모가 직접 손주들을 돌보는)에서 아이들이 자라다보니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며 “자연스럽게 조손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비롯해 다음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 그중 언어교육은 매우 중요하기에 캠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영어교육을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는 “지난 2019년 국제성서화대회를 당진동일교회에서 했었는데 당시 아이들이 2천명이 다니고 있었으며 저출산 시대였지만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된 것,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에 인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 캠프를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를 위해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해외해외업 사회복지회(대표 이상구 목사)는 16일 MOU체결을 했다. 초청되는 인원은 10명 내외. 참가 자격은 대학에 재학중인(26세 이하) 학생으로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능통해야 하며 한국어 구사력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주최측은 전했다. 참가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22일까지 하며, 미주성서화운동본부(박인호 사무국장 213-663-2228)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수잔 정 박사(사진 왼쪽)가 강의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도대체 ADHD가 뭐지요?” 주제 세미나

ADHD-전두엽 발달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증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케서린 엄)는 ‘도대체 ADHD가 뭐지요?’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18일(토)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오미숙 임상심리학자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수잔 정 소아정신과 전문가가 강의했다. 수잔 정 박사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과정을 보면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인해 염색체 변이에 이상이 된다. 그리고 3개월이 될 때 숨골이 만들어지고 변연계라고 불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뇌가 생성된다. 그리고 배고픔, 아픔, 위협에 대한 대처가 일어 난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뇌에서 하는 일은 호흡, 맥박, 혈압, 체온조절 등이며 이마 쪽에 전두엽이 형성되는데 전두엽은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며 신생아 때 엄마의 스킨십과 주변사람들을 인식하면서 개발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ADHD라고 불리는 주의산만증은 전두엽 발달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증세이며, ADHD의 원인 중에는 환경과 관계가 있기도 하는데 남 성분에 노출이 많이 된 아동, 부모의 흡연과 음주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한 뒤 “한국인들의 경우 유독 ADHD에 해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가 ADHD인 부모의 30%정도가 ADHD이며 어떤 면에서는 유전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중에 ADHD가 많다. 유명인 중에는 케네디 대통령, 우피골드버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위산만증은 어릴때 발견하면 치료가 빨리된다. 그리고 성인중에서도 주위산만증이 있는 자들이 있으며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주위산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DHD는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인 만큼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DHD는 우울증, 불안증, 조울증, 자폐가 함께 오기도 한다”고 설명한 뒤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우울해지면 임팩이 없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다. 그리고 잠을 많이 자거나 잠을 못자기도 한다. 따라서 마음의 문제는 육체로 이어지기에 몸과 정신을 모두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잘 관찰하여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할 것을 권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창립 42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하나님과 사랑, 날마다 고백하고 각인하고 확인해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창립 42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며 땅 끝까지'라는 주제로 19일(주일) 예배시간에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는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집회

를 통해 다시금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확인하고 결단하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며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으며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

다”고 말했다. 최성민 목사의 통성기도로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연합예배는 황찬의 전도사와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인도, 박순성 장로 기도, 연합성가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임직식이 열렸는데 증경장로로 4명이 추대되었으며 사무장로 4명, 피택 장로 1명, 명예장로 2명, 안수 집사 13명, 명예안수집사 1명, 권사 31명, 명예권사 6명, 협동

권사 1명 등 총 63명이 임직됐다. 이어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담임)가 ‘머리가 되는 세대 세우는 법(신 11:18-21)’이라는 제목으로 “머리가 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가면 그 자리가 재앙이 된다. 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 사랑은 날마다 고백하고 각인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고 기쁨이 된다. 오늘 은혜한인교회가 42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42년의 역사가 특별하고 남다른 것이다. 지난 42년의 과거보다 더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이라 말했다. 설교에 이어 교회 창립 42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을 자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이수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35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6월 3일(월)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에서 제35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연다.

▲ 문의: 646-708-1101

뉴욕장로성가단, 18회 정기연주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송윤섭 장로)은 6월 2일(주일) 오후 6시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감사와 회복'의 주제로 창단 제28주년 기념 제1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309-3248

ACE 한국법인 창립예배 및 출범식

ACE(Adullam Community in the Endtime)는 6월 1일(토) 오전 11시 조지워싱턴시민교회 본당에서 한국법인 창립예배 및 출범식을 개최한다. Zoom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회의 ID 830 5149 7373 암호 000000이다.

▲ 문의: 646-266-0039

뉴저지한인목사회,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파송 및 후원음악회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김중국 목사)는 6월 2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파송 및 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

▲ 문의: 829-743-3730

뉴욕늘기쁜교회, The Light Of Hope Mission 설립예배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는 6월 2일(주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The Light Of Hope Mission 설립예배를 드린다.

▲ 문의: 718-359-0691

뉴욕새교회, 선교음악회

뉴욕새교회(담임 이명삼 목사)는 6월 9일(주일) 오후 5시 새교회 본당에서 선교음악회를 개최한다. 새교회 찬양대, 뉴욕 미션콰이어 & 오케스트라 감동 및 지휘 제시유, 피아노 최선아, 소프라노 정은지, 테너 조현우, 한국 무용가 이송희 등이 출연한다. 또한 니카라과 이동홍 선교사의 선교소식을 전한다.

▲ 문의: 516-260-0435

뉴욕·뉴저지 교회연합회, 말씀사경회

뉴욕·뉴저지 교회연합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최혁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여호와를 알라'라는 주제로 말씀사경회를 개최한다. 뉴저지는 6월 10일(월)~11(화) 오후 7시30분 뉴저지성도교회(허상희 목사 시무), 뉴욕은 6월 12일(수) 오후 7시30분, 13일(목) 오전10시, 오후 7시30분 뉴욕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 시무)에서 각각 개최된다.

▲ 문의: 201-342-9194, 917-514-0369



뉴욕교협, 싱글맘스 데이 콘서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뉴욕교협은(회장 박태규 목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싱글맘을 초청하여 '싱글맘스 데이 콘서트'를 5월 23일(목) 오후 7시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었다. 교협 연례행사가 아니라 50회기의 특별행사였다.

교협은 참가한 비전담 소속 10여명의 싱글맘들에게 각 업체나 단체들에게서 도네이션을 받은 선물들을 나누어주었다. 또 아름다운 찬양과 능력의 말씀으로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위로를 전하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사회 유승례 목사(총무), 기도 이승진 목사(기도분과), 성경봉독 조동현 장로(평신도 부회장), 특송 뉴욕기독교어린이합창단(지휘 오수현), 설교 이풍삼 목사(교단협력위원회), 봉헌기도 이조연 이사장, 봉헌특주 정인국 장로, 축도 전희수 목사(장학위원회분과)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풍삼 목사는 "싱글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창세기 21:14-1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보통 사람들은 싱글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울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는 싱글맘이 다 되라고 축원했다.

2부 콘서트는 사물놀이 헌터

고등학교, 회장인사 박태규 목사, 트럼본 연주 이재봉 목사, 찬양 이광선 찬양사역자, 스피치 이선경 교수, 찬양 안경순 목사, 싱글맘을 위한 격려시 낭송 배민순 목사(도르가의집 소장), 축사 조상숙 목사(미주한인여성목 부회장), 최영수 변호사와 밴드, 폐회기도 송윤섭 장로(뉴욕장로성가단 단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태규 회장은 "성경은 가정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이유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새어루살림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참가한 모든 회중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를 외쳤다. 이선경 퀸즈 칼리지 교수는 홀어머니로 아들을 키운 경험을 간증했다. 그리고 22년의 싱글맘의 삶을 나누며 재정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라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에 옛날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8회 총회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



①신구임원 교체식 ②신임 총회장 권혁찬 목사(좌)가 직전 총회장 김성국 목사(우)에게 감사패 전달



①관광일에 오려 사모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②이훈우, 백운영, 남명호 선교사에게 파송패가 전달됐다



①관광일에 오려 사모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②이훈우, 백운영, 남명호 선교사에게 파송패가 전달됐다



개회예배를 드리고 있는 총대들

(1면에서 계속)

권혁찬 총회장 사회와 조은철 목사(가주노회) 기도로 시작된 회무시간을 통해 이번 총회를 위해 친선사절단으로 찾아온 합선총회 변세권 목사와 서기 박혁 목사, 그리고 총무 정성영 목사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PRCC 군목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샌디에고 조엘 김 총장, 고든콘웰신학교 스킷 선퀴스트 총장, 해민병원 이성수 소장, 은퇴연금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 풀치 목사(제네바 베네딕 그룹)가 인사말을 전했다. 예상합동총회에서는 총회첫날인 22일 목사장로 기도회를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인도하는 관계로 총회임원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역의 목사(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부위원장)와 성경선 목사(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총무)가 참석하여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열린 회무처리 시간에는 상비부 보고, 서기보고, 총무보고, 헌의부보고로 이어졌다. 이날 북가주노회가 헌의한 장로부총회장 선거를 위한 실행방안 중 장로부총회장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달라는 안건이 올라왔다. 또한 출판부에는 올해 처음으로 출판된 총회 매거진 '바실레이아'의 2권 출판을 결의했으며 KAPC 50년사 발간에 대해 논의했다.

▲선교의 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이사장 오세훈 목사, 본부장 대령 김선중 목사) 선교의 밤 예배가 총회 둘째 날 23일(수) 오후 7시30분 샌프란시스코중앙장로교회(담임 권혁찬 목사)에서 열렸다. 찬양팀 찬양인도와 조은철 목사(선교회 부서기)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박성호 목사(선교회 부회계)기도, 상양중앙교회 코람데오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정금태 선교사(파라과이)가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종(행 18:5-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금태 선교사는 "선교사

는 오로지 성경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마음속에 말씀과 충성이 있을 때 선교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선교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김선중 목사가 파송선교사 소개했으며 오세훈 목사가 서약과 공포를 한 뒤 파송식을 가졌다. 이날 파송 받은 선교사는 북가주노회 남명호 목사(순회선교), 로스앤젤레스노회 이훈우 목사(우크라이나), 필라델피아노회 백운영 목사(말레이시아). 이날 권면은 전총회장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노회) 원로)가 했으며 샌프란시스코중앙장로교회 크로마하프팀/선교사 일동이 헌금을 위한 특별연주를 했다. 이날 드린 헌금은 선교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권강혁 선교사(튀르키예)가 '튀르키예 선교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미시적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는 후, 장성철 목사(선교회 부이사장)가 운영이사 소개를 한 뒤 조문희 목사(전총회장)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총회 셋째 날(목) 아침예배는 서정호 목사(중부노회장)의 인도로 시작됐다. 남석진 목사(동가주노회장) 기도와 차재홍 목사(중남미노회장) 성경봉독에 이어 김홍석 목사(고신총회장)의 설교가 있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롭시다"(살전 5:16-18)의 제목으로 "찰스 스텐리 목사는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역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

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역자로 사모로 부르심에 감사하라"며 가까운 사람부터, 작은 것로부터 감사의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셋째 날 아침 예배는 오세훈 목사(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를 마친 총대들은 이날 특별 순서로 마련된 관광길에 올라 트윈픽스, 피어 39, 금문교, 소살리토 등 샌프란시스코의 명소들을 방문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23일 목요일 저녁 회무처리를 마친 후 홍성우 목사(북기 마운틴노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제48회 KAPC총회 폐회예배는 기도 장수일 목사(아시아노회장), 성경봉독 한봉헌 목사(브라질노회장)에 이어 권혁찬 총회장이 "우리 다시 모일 때(행 14:27-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혁찬 목사는 "제48회 총회로 모였던 총대들을 지교회로 파송하는 자리가 폐회예배"라며 "이번 총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긴 목양터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한 것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떠나게 됐다. 우리가 사역하는 목회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49회 총회로 모일 때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게 되는 아름다운 총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권혁찬 총회장은 설교를 마치면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목회자들의 치유를 위한 합심기도 했

다. 이어 권혁찬 총회장은 2025년 5월 20일 오후 7시 (제49회 총회 장소)에 만날 것을 약속하며 폐회를 선언함으로 제 48회 총회의 막을 내렸다.

▲24(목) -> 24(금) KAPC WMS 선교사 대회

총회 마지막 날인 24일(금) 오전 8시 총회 장소에서 2024년 KAPC WMS 선교사 대회를 개최했다. 김선중 목사(본부장)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백운영 선교사(말레이시아), 성경봉독 김진완 선교사(아르헨티나), 설교 오세훈 목사(이사장)로 진행됐다. 오세훈 목사는 '어둠에서 빛으로 (행 26:16-18)'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어둠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의 선교지에서도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혁찬 목사(총회장)는 "지금 교회들은 교회의 문을 닫거나 교인 수가 줄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교사들이 파송교회와 후원교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설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어 김진옥(캄보디아), 공재남(캐나다원주민), 이훈우(아크라이나), 김재호(필리핀), 김진완(아르헨티나), 권강혁(튀르키예), 정금태(파라과이), 남명호(순회), 장수일(필리핀), 백운영(말레이시아), 채기수(네팔) 선교사 보고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총회 관련 내용은 www.chpress.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공동취재팀)



T4 메모리얼데이 피크닉 사진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가는 공동체"

퀸즈장로교회, T4 메모리얼데이 피크닉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Memorial Day를 맞아 오전 10시 '다민족이 함께하는 (T4: Together 4 congregations) 메모리얼데이 피크닉'을 퀸즈장로교회에서 개최했다. 본 피크닉은 Bethpage State Park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비가 오는 관계로 퀸즈장로교회에서 진행됐다.

최원일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문태일 집사, Jay Youn 장로, 김영덕 집사, 블라지미르 안 집사, 성경봉독 왕지혜, Victoria Lee, 첸 베이, 알레그사드르 장 여린이가 네 개의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다민족과 다음 세대가 함께 했다.

또한 설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 (시편 133:1)'이라는 제목으로 김성국 목사, 김도현 목사, 첸위지 목사, 송요한 목사가 각 언어로 설교했다.

이날 설교는 다민족 목자들이 나와 하늘을 바라보는 스킷을 시작으로 김성국 목사의 설교가 시작됐다. 김 목사는 "두 세 사람이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영향을 받아 함께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하늘을 바라보

는 공동체인 줄 믿는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뉴욕 땅에 저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저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 뭐냐?'를 다른 이들이 궁금해 할 때 그것은 하늘이고 천국이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곳인 줄 믿는다.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훈 장로의 광고,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순서는 준비체조로 시작하여, 66세 이상을 위한 성경퀴즈, 교회학교의 게임, 전교인 친교 게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은 각 언어권의 전통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교회와 각 구역별로 바비큐를 준비하여, 모두가 함께 교제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티켓과 선교를 위해 구입한 티켓으로 경품추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자신의 티켓에 집중하며 당첨자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든 순서는 영어예배 김도현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OC 목사회 주최 목회자 위로회

“은퇴... 새로움을 시작하는 리타이어(Re-Tire) 되야”



OC목사회 주최 은퇴목사 위로행사에 참석한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가 주최한 오렌지카운티 은퇴목사 위로회가 지난 5월20일(월) 오전 11시 갈보리 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있었다.

심상은 목사는 “700, 800시간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심 목사는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년수를 다 누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광야에서 백성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불구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목도하고 수고와 슬픔만 남았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에는 은퇴라는 말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퇴를 생각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영혼들을 돌보

시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은퇴가 있을 뿐이다. 은퇴라는 의미의 영어단어인 리타이어(Re-Tire)를 같이 끼우며 새로움을 시작하는 리타이어(Re-Tire)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된 모든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이원석 회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심상은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OC목사회가 제공한 식사를 마친 후 동요와 건전가요를 부르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OC목사회는 참석자들에게 선물도 증정했다.

(박준호 기자)



제2회 올투게더 인 러브 나드리 콘서트에서 출연자들이 플래쉬몹 공연을 하고 있다

제2회 올투게더 인 러브 나드리 콘서트

“나들이 나가 식사도 사진도 음악회도 관람하는 축제”

올투게더 인 러브(이사장 양한나) 주최 제2회 나드리 콘서트가 5월26일(주일) 오후 5시 30분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양한나 이사장은 “나드리 콘서트는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집에 머물던 시니어들에게 모두 나와 나들이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음악회도 관람하는 축제라는 의미로 지어졌다”며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행복한 세상,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승기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린 콘서트는 로스앤젤레스

프레이즈 엔드 워십(리더: 랜디 김)의 찬양인도, 양한나 이사장 환영인사, 김성남 목사(부에나파교회) 축하메시지로 이어졌으며 바리톤 장상근, 그랜드 페스티벌 콰이어(지휘 강민석), T. K-SORI 신명(대표 신윤희)의 판소리, 디레타 트리오(피아노 안명진, 첼로 안찬송 바이올린 안성경)의 연주, 솔로리스트 콰이어(지휘 김혜선), TneV3Dance팀의 댄스공연으로 이어졌다. 이어 이날 참석한 성악가들과 합창단원들이 함께 플래쉬몹 공연을 선사한 뒤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제12차 전인적 힐링 세미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함을 경험하길”

GIFT상담치유연구원(대표 전달훈 리더)은 제12차 전인적 힐링 세미나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세리토스선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5월11일(금), 12일(토), 17일(금), 18일(토)에 개최했다. 전달훈 박사는 “크리스천의 성숙은 나 자신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치유, 회복, 건강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사람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전 박사는 “치유 세미나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새 소망을 찾기를 소망 한다”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경험과 아픔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

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 한다”고 말했다.

18일(토)에 열린 세미나는 ‘침과 치유, 나는 진짜 어떻게 관계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진짜 어떻게 관계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 등의 제목으로 리더인 전 박사가 강의했으며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리더인 전 박사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한 뒤 그룹별로 나눠 참가자들이 자신의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한 뒤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새생명선교회 주최 2024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들과 강사목회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생명선교회 장학금 수여식 및 목회자 세미나 개최

“소형교회 목회자 지원금, 신학생 장학금”

새생명선교회(김은형 대표, 주성기 이사장)가 지난해 작고한 고 박희민 목사 소천 1주기를 기념 2024 목회자 세미나가 “디아스포라를 위한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의 제자후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의 기도사역 △김한오 목사(베델교회)의 설교사역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의 장애인사역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회)의 선교사역 △이상훈 총장(미성대학교)의 선교적 교회 △민중기 목사(KCMUSA이사장)의 목회리더십 등의 강의를 행해졌고, 마지막 강의인 강준민 목사의 영성훈련은 일정이 늦어진 관계로 참석자들에게 강의 안을 보내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번 소형교회 목회자 지원 프로그램은 총 99명 지원, 50명을 선발했는데, 이중 타주

목회자가 7명, 캐나다에서 온 목회자가 1명이었다.

강의를 모두 마친 후 행사를 이끈 강준민 목사는 특히 타주에서 참석한 조지아주의 강병철 목사, 텍사스 주의 김포윤 목사 등에게 강의 소감을 묻자, 타주의 목회자들은 점점 한인이 줄어드는 각 지역에서의 목회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토로하고, 모처럼 열애이에서 다른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존경하던 강사 목사님들에게서 귀중한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새생명선교회의 대표인 김은형 전도사가 직접 나와 새생명선교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장학생들에게 각각 5천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참석한 목회자들은 강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새생명선교회가 준비한 감사편지와 한 명당 1,500달러의 수표, 고 박희민 목사의 설교집을 선물로 받았다.

(박준호 기자)



에브리데이교회 시니어칼리지 색소폰앙상블반 단원들이 특별찬양을 연주하고 있다

로스펠리츠교회 창립 49년 부흥회 및 담임목사 취임식

“전도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표현”

로스펠리츠교회(담임 이석부 목사)는 창립 49주년을 맞아 담임 이석부 목사 취임 및 창립 감사예배를 5월17일(금)-19일(주일)까지 강성률 목사(수원종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예수를 증거 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명진 장로의 기도로 시작 된 토요일 저녁 집회에서 이석부 목사는 “강성률 목사는, 신실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에 중점을 주며 부흥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강사를 소개하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단애 오른 강성률 목사는 ‘빌립의 전도’(요1:43-51)의 제목으로 “우리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일평생 전도한번 못하는 성도가 있다.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하면 주님이 도우신다. 전도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다. 찬양할 수 있고, 삼길 수 있고, 생현이 전도다”라고 도전을 던져 주었다. 또한 그는 불신자였던 가정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지금의 아내와의 결혼이야기를 통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며 “전도는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시작하자, 듣

든지 안 듣든지 같이 예수 믿자’고 권해야 한다. 가까운데서 안 되면 잠시 두고 먼데 사람을 하면 된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강박하니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나?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이석부 목사의 취임식과 새가족 환영 및 축하순서도 함께 했다. 이날 강성률 목사는 ‘전도자의 시선’(행 16:16-34)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구원받은 간수처럼, 예수만이 구원받아 영생을 받은 기쁨을 전해야 한다. 이 시대에 우리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의 시선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소원한다”며 전도를 강조했다. 이날 특별순서로 지난 49년의 교회 역사를 영상으로 소개한 뒤, 남상은 장로가 6대 담임목사 소개했다. 이어 3대 담임목사 윤신식 원로목사의 축사와 격려사가 읽은 뒤 교회학교와 정대일 집사의 특송 순서를 통해 축하의 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월드쉐어USA 연합 선교음악회 및 출판감사예배
월드쉐어USA(대표 강태광 목사)는 수리남, 아이티, 도미니카 극빈 아동 지원을 위한 연합 선교음악회를 6월 2일(일) 오후 7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갖는다. 금번 음악회는 주사랑 나눔 여성합창단, LACS, LA 남성선교 합창단, LA 챔버 콰이어, 베아투스 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한편 이날 강태광 목사의 신간 ‘손에 잡히는 크리스천 행복론’ 출판감사예배가 오후 4시에 열린다.

▲ 문의: (323)578-7933

열매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부흥회 및 임직식
열매교회(담임 김오섭 목사) 창립 23주년 기념 부흥회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5월31일(금)과 6월1일(토) 양일간 개최한다. 부흥회 강사는 김재열 목사(뉴욕선교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7시이다. 한편 6월2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는 교회창립 23주년 감사예배 및 원로장로, 명예장로, 시무장로 임직식을 갖는다.

▲ 문의: (213)215-8523

원하트미니스트리 10주년 기념 마커스워십 찬양집회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 10주년 기념 마커스워십 찬양집회가 ‘예수 우리와 함께’라는 주제로 5월31일(금) 오후 7시30분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6월1일 오후 6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6월2일 오후 6시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손창민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213)347-5080

생수의강선교회 부흥성회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최형구 목사)는 2024생수의강 부흥성회를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성회의 강사는 이영길 목사(보스톤한인교회)이며 일정은 5월31일(금) 저녁 7시30분, 6월1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30분, 6월2일 오전 7시45분, 11시30분이다.

▲ 문의: (562)653-0168

시니어 음악인들의 클래식 연주회
리저월드오케스트라(단장 크리스 그루바, 지휘 김규삼)는 2024년 봄 정기연주회를 6월1일(토) 오후 1시 리저월드 클럽하우스#4에서 갖는다. 이날 연주회는 LW한인커뮤니티교회(담임 용장영 목사) 찬양대와 함께 베토벤의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 중 ‘천사의 합창’을 연주한다.

▲ 문의: (714)788-4813

세미한교회 이동원 목사 초청 부흥회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이동원 목사 초청 부흥회를 ‘축복의 통로’라는 주제로 6월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7일(금)과 8일(토) 오후 7시, 9일(주) 1-3부 예배 시간이다.

▲ 문의: (972)446-0178



이영숙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감사한인교회 행복한 가정세우기 세미나

“하나님은 태어난 ‘성’ 그대로 축복하시고 계획 갖고 계셔”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세우기’세미나를 5월10일(금), 11일(토), 17일(금), 18일(토)에 이영숙 박사(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17일(금) 오후 7시30분에 열린 세 번째 세미나는 이영숙 박사가 ‘좋은성 세미나 (1): 창조론적 감수성으로 아름다운 성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영숙 박사는 “지금 시대는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 학교에서 성경을 미워하는 시대가 되었다. 공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어렵다. 유네스코에서 만든 포괄적 성교육이 전세계에 뿌려졌으며 그 내용은 비성경적인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공교육의 현상이 망가졌고 다음세대가 다 죽게 생겼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성교육을 배우고 있기에 학교에 보낼 때 분별해야 한다고 말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은 남

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가정을 만드셨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성품학교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한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다.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놓이더라도 그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따라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무엇보다 결혼의 목적인 건강한 자녀양육을 하는 것이고 부모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자녀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문화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의 성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성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기성 제118년차 총회 개회

목사 부총회장 3파전, 장로 부총회장 4파전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임석웅 목사)가 28일 전북 전주 바울교회(신현모 목사)에서 제118년차 정기총회를 개회했다. 기성은 사흘간 임원 선거를 비롯해 총회 현안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한다.

개회예배에서 임석웅 총회장은 “기성 산하 교회들이 ‘매가 처치’는 될 수 없어도 한국에 신선한 도전과 영적 자극을 주

는 ‘매타처치’는 될 수 있다”며 “성결교단이라는 큰 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들이 바람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안건을 처리한다.”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성 성도 수는 38만5727명으로 2022년(38만6668명)에 비해 941명이 감소했다. 10년

전(55만2671명)에 비하면 16만6944명이 줄어든 수치다. 교회학교 수는 2022년 5만9434명에서 지난해 5만8923명으로 줄었다. 기성은 전반적인 한국교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회기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를 주제로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펼쳤다. 특히 각 교회와 성도들의 전도를 독려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회에서 전도왕 시상식을 열었다. 1등은 서순애 신길교회 권사로 131명을 전도해 모두 교회에 등록시켰다. 기성은 서 권사를 포함한 수상자 22명과 소속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선물을 준비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윤창용(한우리교회) 안성우(로고스교회) 김원천(대부천교회)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도 양병현(중앙성결교회) 노성배(임마누엘성결교회) 안보옥(귀래성결교회) 임진수(양산성결교회) 장로 등 4명이 올라 선거가 진행된다.



순복음세계선교대회 개막...

선교사들 가장 시급한 문제? “노후 대책”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의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50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이하 선교대회)가 29일 시작된다. 31일까지 열리는 선교대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던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선교 전략을 공유하는 행사로, 사역을 하면서 겪은 고충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선교대회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 676명(지난 3월 기준) 가운데 약 4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순복음 선교사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그 답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28일 공개한 ‘순복음세계선교대회 50주년 기념 선교백서’에서 엿볼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최근 선교대회 틀 앞두고 백서 제작을 위해 순

복음 선교사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향후 순복음 선교발전 제안’ 항목에서 가장 많은 이가 지적한 내용(복수 응답)은 ‘퇴직 후 연금 및 노후 대책’(91명)이었다. 이어 ‘선교사 케어(영성, 정신건강, 질병)’(90명), ‘안식년 제도’(58명), ‘인적 문제(후임자)’(49명), ‘선교사 연장교육’(31명) 순으로 집계됐다.

백서에는 은퇴 선교사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소리도 담겨 있다. A선교사는 “순복음 선교사 1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은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선교사는 “은퇴 후 거주할 곳이 없다”고 했으며, C선교사는 “은퇴 선교사의 출구 전략과 관련된 연구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는 한국교

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는 교단·교회·선교단체·선교사 차원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결론이다. 이에 국내 일부 교단들은 은퇴 선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이달 중순 열린 정기총회에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김만수 신임총회장은 임기 내 주력 업무로 선교사 은퇴제도 마련을 꼽았다.

앞서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지난해 9월 정기총회에서 은퇴 후 귀국한 선교사의 안정적인 국내 재정착을 위해 교단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골자는 은퇴사역자(목사·선교사 등)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이를 위해 ‘은퇴사역자 주거안정사업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것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강대흠 사무총장은 올 초 “개인 선교사들이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교사의 기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KWMA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선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타문화권에서 2년 이상 사역 중인 한국 국적 선교사는 2만1917명이었는데, 6435명이 60대 이상이었다. 은퇴 연령을 70세로 가정하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선교사가 10년 내에 은퇴를 하는 셈이다.



“성오염 막는 방파제 튼튼하게 세우자”

1020 참여 부쩍 늘었다

지난 24일 칠곡같이 어두운 밤,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 대성전에는 7000여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모였다. 통감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거룩한방파제·대회장 오정호 목사)가 개최한 ‘연합급요철야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다음달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동성애 퀴어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기독교 가치관과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움직임에 맞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로 기도회가 열렸다.

참석한 성도들의 면면은 70대 어르신부터 10대 학생까지 다양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청년들

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소속 교회에서 단체로 온 청년들도 있었고 자발적 의지를 갖고 단독으로 참여한 청년도 있었다. 강원도에 사는 온 김한규(27)군은 “군대와 대학 생활을 하며 각종 문란과 퇴행 등을 목도했다”며 “뜨거운 신앙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도회는 주로 합심·전체기도와 특강으로 진행됐다. 우선 특별기도위원장인 최광희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를 드렸다. 성도들은 “한국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성경비평 반대 운동, 참된 교회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 등에 앞장서 우

리 자녀들을 구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특강 시간에는 각계각층의 연사가 나와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공동대표는 학교현장의 성오염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 다음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강조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육 대표는 “음란한 세력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한다. 규준이 됐던 가족의 개념도 재정의하고 사랑의 개념도 바꾸려 한다. 즉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을 없애려 한다”고 진단했다. 영국의 저명한 법정 변호사이자 대표적인 반 성오염 행동가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용기를 갖고 모든 방면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성오염은 궁극적으로 ‘안티 크라이스트’다. 이러한 것들을 물리쳐야 할 사명이 지금 우리 손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도회는 25일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 진지하게 개인기도 시간 등을 가졌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팔을 치켜들고 소리내 기도하는 사람 등 저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임했다.



직장선교 4개 단체, 일터사역자 협력을 위한 전략 워크숍 개최

직장선교 4개 단체가 뭉쳐 일터사역자 협력을 위한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험기관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보선연·회장 정성봉 목사)와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세직선·대표회장 박상수 장로, 손영철 목사),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구소(직선연·소장 문영용 목사), 한국기독교직장선교목회자협의회(직목협·상임회장 김창영 목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강화도 웨슬리 수도원에서 ‘제1회 일터사역자 협력을 위한 전략 워크숍’을 공동주관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제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잡24:6)이다.

전략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영철 목사가 ‘구심선

교 및 원심선교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장선교 활성화 전략’에 관해, 글로벌 CBMC 회장 김만환 박사가 ‘소상공인 복음화 전략’에 관해,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인 이훈 장로가 ‘직장선교 활성화 중·단기 전략’에 관해, 직목협 사무총장인 이광돈 목사가 ‘직목협 활동 방향’에 관해, 세직선 언론공보단장인 박신호 기자가 ‘일터사역 전문지 개발’에 관해, 한글사랑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인 함은혜 목사가 ‘정의적 전도지 개발 및 활용’에 관해 각각 발표했다. 발표 후 발표자들은 참석자들과 토론을 통해 사역자 및 선교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기도 했다.



이 시대 미전도종족인 다음세대

함께 찬양하며 웃음꽃 “주님 안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래요”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던 25일 오후 인천 서구 평강교회(박희정 목사)에 중·고등학생들이 속속 들어왔다. 다음세대 인천사역자협의회(회장 류찬영 목사)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인기총·총회장 주승중 목사)가 주최한 ‘인천 청소년 대축제’ 참석자들이었다.

이날 집회는 인천시가 2021년 조례로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면서 이를 기념하고자 지난해부터 마련됐다. 이 시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다음세대에 복음을 제시하고 격려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정일량 인기총 상임회장은 대회사에서 “성경은 구약 창세기에서 요셉의 꿈을 이야기한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 꿈을 꾀다”며 “세상을 짊어질 여러분도 오늘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길 바란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며 비전을 심어 주시는 분”이라고 전했다. 기독교 문화사역자 최일호 전도사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집회 시작을 알렸다. 참석자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TR워십이 찬양을 시작하자 청소년들은 무대 앞으로 뛰어나갔다. 머리 뒤로 손뼉을 치는 이들부터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하는 이들까지 각양각색이었다. CCM 가수 강찬 평강교회 협동목사의 특별공연도 함께했다.

CCM ‘그사랑’ ‘주님의 임재 앞에서’를 작사작곡한 박희정 평강교회 목사가 말씀을 나눴다. 박 목사는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도 가는 거야’(막4:26-29)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교회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려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여러분의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교회를 떠나갈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한 오시면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달라”고 당부했다.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엄지를 치켜올렸다. 큰기쁨교회(김성훈 목사) 학생부 박재석(16)군은 “특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펄 때 너무 좋았다”며 “집회를 마치고 일상이 돌아가서도 항상 겸손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었다”고 다짐했다.

정 목사는 기초강연을 통해 “비즈니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의 확산을 위해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선교 전략이고 크리스천 경영자 여부를 떠나서 기업경영에 성경적 원리가 적용되게 하는 것이 변형을 가져오게 하는 최선의 경영전략”이라며 “지금은 직장복음화를 위해 일터 사역자들과 선교단체간 감정을 활용한

피종진 목사 6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as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토) 오후	한국교회와 목회자 살리기 연합성회 및 나눔행사 장소 : 서울강남선교센터(이사장 강사량 목사) 010-8331-3431 서울 선한이웃교회(윤창규 목사) 성령30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2(주일) 오전	제238차 해외성회(238th Overseas Assembly)
2(주일) 밤	출국 3(월) 필리핀(Philippines) 문명 달라우교회 원주민 부흥성회 4(화) 필리핀(Philippines) 조리아교회 원주민 목회자부흥성회 5(수) 필리핀(Philippines) 개인교회 원주민 제직세미나 6(목) 필리핀(Philippines) 생발루칸 원주민 야외연합부흥성회 7(금) 필리핀(Philippines) 라구나지역 원주민 교인기정방문 기도회 8(토) 새벽 귀국
9(주)~12(수) 저녁	서울 선한이웃교회(윤창규 목사) 010-5339-6437 30주년기념 축복대성회
10(월) 오전	세계비전부흥사회의회 장소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오수이 여성대표회장 취임) 010-9082-9030
12(수) 오후	대구 열방교회(배성진 목사) 010-8564-2696 주최 : 그루터기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13(목) 오전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79
13(목) 오후	첫사랑 회복운동 선교센터(원장 김만나 목사) 주최 : 알파와오메가 열방부흥사회(대표회장 백사람 목사) 010-2272-9119
13(저녁)~14(금) 낮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14(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량 목사) 010-8331-3431
17(월) 오후	한일산기도원(원장 이영급 목사) 주최 : Good TV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희영 목사) 010-7291-0291 (사)지선협(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나라사랑기도대성회 장소 : 구리성민중앙교회 Visit To The Mission Field Association MT
19(수)~21(금)	서울 거성교회(노원수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정로·권사 임직예배)02-400-8580
22(토) 오후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3(주) 저녁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4(월) 오전	담양 새생명기도원
24(월) 저녁	담양 새생명기도원
25(화)	송주 반석기도원(원장 고관은 목사) 010-2391-3004
26(수) 저녁	한일산기도원(원장 이영급 목사) 주최 : 예수생명부흥협의회 (총재 조성훈 목사, 대표회장 최민철 목사) 010-7754-8291
27(목) 오후	논산 아담은 기도원(원장 최미혜 목사) 010-7460-9926
27(목) 저녁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28(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량 목사) 010-8331-3431
30(주) 오후	서울 온누리한중교회(정민철 목사) 010-3224-2345 목회자 부흥사 세미나
30(주) 오후	필리핀 갈라시라 생발루칸교회(하용철 선교사)천안원심팀 남서부중교회 방문

www.nscs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1-7770

mission 선교의 창 (23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시니어(Senior) 선교사 동원

“홍수 때에는 마실 물이 적다.”라는 말이 있다. 물이 가장 많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21세기는 교회마다 앞다투어 선교를 부르짖는다. 현대 의외로 선교 헌신자들은 가뭄에 콩 나듯하다. 확실히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마 9:37) 때이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선교적 소명을 받으면 계산치 않고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청명한 부르심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좌고우

가야 한다. 은퇴했다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유유자적(悠悠自適) 생활은 사명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1. 시니어 선교사로서 합당한 사람

누가 시니어 선교사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나이 들고 은퇴했다고 모두가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순수한 동지이다. 찾는 이 없고 불러주는 곳 없으니 선교지로 가 무료(無聊)한 생을 새롭게 엮어 보고자 하는 의도는 불순하다.

과 동역을 해야 한다. 이때 자칫하면 상전 노릇 하려는 습성이 나오기 쉽다. 철저히 현역에서 리더십을 존중하며 원로로서 여러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심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재정 능력이다. 원칙은 자비량이다. 연금이나 기간 모아 둔 저축액 등을 사용하면 다른 이에게 손 안 벌리고서도 능히 거할 수 있다. 만일 그것마저 없다면 하나님께 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필요를 채워실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기 마련이다.

로부터 12년간 지성으로 의수족 제작기술을 익혔다. 이 목적은 1966년 미국 의수족 회사의 초청으로 도미했다. 그는 미국에서 목사와 의수족 기술자로 22년간 활동했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1987년 부인과 함께 동남아를 돌아보았다. 마지막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중국의 장춘(長春)과 하얼빈(哈爾濱)에서 장애인 집단 작업 현장을 돌아본 후 그 열악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미국 생활을 접고 1988년에 중국으로 날아갔다. 그의 나이 64세 때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사역은 중국 각지로 이어졌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대지를 밟고 일어섰다. 산둥(山東)성에 사는 장하이디(張海迪, 35) 여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이자 작가였다. 그녀는 다섯 살 때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현대 그녀가 의족을 신고 치마 차림으로 일어섰을 때 중국 여러 곳에서 16년 동안 7천여 명의 불구자를 진찰했다. 그 가운데 3천5백여 명에게 의수족을 무료로 달아줬다. 그가 양성한 중국인 의수족 기술자만도 450여 명에 달한다. 이에

에도 그의 헌신과 사랑의 여운이 사멸되지 않고 은혜입은 중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3. 제도적이며 전략적인 관점

“시니어 선교사로서 나가겠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냉소적이다. 이유인즉, 세상의 관례는 젊어서 일하고 나이 들어서 쉬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한 시니어들은 대부분 봄바람에 흔들거리는 수양버들 나무처럼 말년을 보내고 있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인생의 행복 조건이란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손에 일이 있으며, 앞에는 이상(꿈)이 있을 때”라고 말했다. 불세출의 철학자 인도 이렇게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했다. 그렇다. 인간이 호흡을 하고 있는 한 뭔가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주님을 위해 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사역과 존재 자체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100세 시대가 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구조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먼저 기존 선교사들에게 적용

어야 한다. 시니어들은 그 강점이 극대화되고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문 선교단체에 속하는 것이 좋다. 시니어 선교사들에게는 행정적 내규도 획일적일 필요가 없다. 각자의 특성과 나이에 맞게 거주, 비거주 사역을 융통성 있게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맺음 말

인생은 누구나 끝이 있다. 현대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끝이 없거나 아예 그것이 먼 훗날 올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세월은 냉엄하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 마치 서녘 하늘을 발갱게 물들이는 태양처럼 아름답게 매듭지어야 하지 않을까? 21세기를 사는 시니어들은 건강하고 마음은 이팔청춘과 다를 바 없으며 많은 전문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저들 중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회적 제도인 은퇴로 말미암아 말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선교적 관점에서 애석한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의 부류가 있었다. 시니어들은 청년들에 비해 단점이 많지만 장점도 적지 않다. 선교적 공헌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년 수보다 온전한 헌신에 달려 있다.

면(左顧右盼)하며 몸을 사린다. 우리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고 했다. 세계교회는 지상 교회가 받아들여야 할 멈출 수 없는 과업이다. 이를 위해 시대마다 쓰임 받던 부류가 있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선교환경이 어려워졌다. 전통적인 선교 방법으로는 그 한계성이 크다. 새로운 돌파가 필요하다. 이제는 시니어들이 뭔가 역할을 할 때이다. 시니어들은 청년들에 비해 약점이 많다. 하지만 저들이 갖지 못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반응이다.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했듯이 우리도 하늘 부름 있기까지는 진취적으로 나아

선교지는 휴양 터가 아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직 일념으로 현재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둘째 건 강한 체력이다. 몸이 아프면 사역은커녕 주변 동역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대체로 제3세계는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에 판단을 잘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의 노하우이다. 선교지에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자기만의 주특기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일은 현지에서 다 조달가능하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꼭 영성분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온유한 마음이다. 선교는 혼자서 할 수 없다. 사역지에 가면 젊은 선교사들

2. 모범적인 사례인 이관숙 선교사

고(故) 이관숙 목사는 1924년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월남한 그는 1950년 의무관(중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 해 가을, 중동부 전선에서 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당시의 절망을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다. 목발을 짚고 군문(軍門)을 나선 그는 한경직 목사의 소개로 연대 재할 의학과 R. A. 토리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토리 박사는 그에게 “진짜 다리” 같은 멋진 의족을 선물했다. 그는 하늘을 날 것 같았다. 그는 토리 박사

중국 정부는 한 중 수교 직후인 92년 12월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명예훈장인 “유자우(孺子牛)”상을 수여했다. 유자우란 “잔 여물을 먹으면서도 큰일을 해내는 소(牛)같은 인물”이란 뜻이다. 그는 당시 장애인 아버지로 통할 정도로 폭넓은 존경을 받았다. 이관숙 목사는 향년 80세인 2003년 한국, 미국, 중국 등에서 고단한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갔다. 그는 미주 한인장로회 총회장까지 역임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의족을 한 장애인이었기에 은퇴 후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제 4막 인생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불꽃처럼 살았다. 세월이 흐른 지금

되는 은퇴시기를 없애는 것이다. 꼭 생물학적 나이 70으로 자를 필요가 없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은퇴시기를 자율화함이 마땅하다. 설사 저들이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해도 기댈 곳이 없지 않은가? 피차간에 부담이다. 선교사는 병들지 않는 한 현지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 또 다른 한 면은 시니어 선교사 파송 건이다. 영적전투 현장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헌신된 한 사람이 절실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목회자를 포함 은퇴한 고급인력들이 수두룩하다. 교회는 저들에게 강한 선교적 도전을 해야 한다. 모병-훈련-파송-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도 보완되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말적 선교 과업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든 이가 모든 곳으로 나서야 한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이며 한국 산업화의 기수였던 정주영 씨가 한 모델이다. 그는 남북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1998년 6월 16일 판문점을 통해 소 500마리를 끌고 북한으로 갔다. 그때 이 광경은 세계로 송출되었다. 그의 나이 83세 때였다. 정 회장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왕성하게 살았다. 이 기백(氣魄)이 한인 모든 시니어들에게 흐르기를 소망한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2강 웃니엘, 드보라, 바락, 에훗 그리고 기드온 (3)

악을 행하여 팔리고 부르짖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과 ‘아들 딸’을 서로 주고 받으며 하나가 되어 마침내는 그들의 신들을 섬김니다(삿 3:5,6).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잊었으며 ‘바알’들을 섬기고 바알의 어머니라는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삿 3:7). 풍요만 얻을 수 있다면 좋다는 신들은 다 섬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고 8년동안 고통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 웃니엘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웃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으로 하나님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삿 3:10). 그래서 평온한 시간이 40년이 되었습니다(삿 3:8-11).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심으로 18년동안 고통을 받은 백성들은(삿 3:12-14)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윈손잡이 에훗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사사 에훗이 윈손잡이라는 뜻은 ‘윈손을 오른손보다 잘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 보다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1규빗, 대략 45cm의 큰 칼을 숨겨서 왕을 만나려 하는데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

킨 시간이 다시 40년이 되었습니다(삿 3:15-30).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군대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드보라의 손에 파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복하게 하십니다(삿 4:9).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하십니다(삿 4:24). 이때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삿 5:20,21)고 합니다. 지금의 탱크와 같은 엄청난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이 직접 싸우주시

고 기손 강이 범람하여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한 시간이 또다시 40년이 되었습니다(삿 4:3-5:31).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삿 6:6)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

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삿 6:8-10)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와 사사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 몰래 포도주 틀에서 간신히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부릅니다(삿 6:11,12). 기드온은 여호와와 사사를 알아보고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삿 6:13)고 합니다. 원인은 분명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인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라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느 1:6-8)와 다니엘(단 9:5,6)과는 대조됩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

로 불렸을 뿐이지 ‘용기’도 ‘믿음’도 없었던 기드온은 주의 사자로부터 ‘표징’을 구하고 표징을 보고서 오히려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삿 6:17-23).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찢어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두려워 밤에 합니다(삿 6:25-27).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이 ‘탁월한 용사’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간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해서 죽었듯이 믿음을 잃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의 대표로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승리를 주심으로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토록 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삿 6:34)고 말씀으로 다시한번 기드온 자체의 능력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다시 한번 양털 시험을 하고(삿 6:36-40) 확인을 거듭한 후에(삿 7:9-14)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합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어리석은 인생 (눅 12:16-21) 찬 287장

어리석은 생각을 믿고 산 것이다. 여러 해 쓸 물건은 준비하여 두었지만 자신의 영원을 위한 준비는 없었다. 즉 자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산 것이다. 자신에게 삶을 주신 자신의 주인을 알지 못하고 산 것이다.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다. 주인이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인을 위한 인생이다. 나를 위한 인생

이 아닌 것이다. 주인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 본문의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 산 것이다. 장래를 위하여 준비를 잘 한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만족했다. 그러나 불행한 삶을 산 것이다. 주인 앞에서 사는 자로서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무시한 삶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화 아버지께서 돌보신다. (눅 12:22-31) 찬 325장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실상을 보고 누리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일 하심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며 자연이 살게 하는 것도 아니다. 주인이 돌보시며 가꾸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은 가장 소중한 자다. 가장 많이 세심하게 돌보신다. 돌보시는 실상을 알아야 한다.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대적에서 안전하

게 하신다. 가장 아끼고 돌보시는 실상을 보아야 한다. 육신에서 나타나는 염려와 근심의 것을 누리지 말라.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신다.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돌보신다. 마치 공기가 가득하여 살게 함과 같이 은혜의 손길이 가득 하신다. 사망의 생각을 따라 사망의 것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돌보심의 실상을 보고 누리라.

수 안식을 누리야 한다. (눅 13:6-16) 찬 143장

안식일은 있지만 그 날에 안식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함을 받고 누리야 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만이 아니라 안식을 받고 누리야 함은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십 팔 년 동안 귀신으로 인하여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안식을 주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안식을 받는 날로 되어

야 한다. 죄로 인하여 매임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받아야 한다. 사망의 생각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 벗어나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놀림에서 어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안식을 받아야 한다. 죄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 안에 참 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다.

목 주님을 모시고 살라 (눅 14:7-11) 찬 370장

육신 안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 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 육신의 생각의 뿌리는 죄다. 죄는 나를 멸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나타나는 생각의 근원을 확인하여 거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도록 하라. 자신을 사람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임을 알고 잊지 말라. 주님 앞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높이라. 주님을 잊고 자신이 주인 자리에 있지 않게 하라.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이다. 항상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모시라. 만왕의 왕을 모시고 섬기는 거룩한 영광을 깨달아야 한다.

금 구원으로의 초대 (눅 14:16-20) 찬 324장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신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저들은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육신이 가로 막고 있고 그 육신의 생각이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다. 육신의 것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찾아 왔지만 받

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산다. 진리가 없는 것이다. 육신에 속하여 판단하고 옳다고 하며 사는 것이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만난다.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인 것이다.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따르고 누림으로 벗어나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토 주님과 하나 된 삶 (눅 14:26-27) 찬 289장

주님을 모시는 자는 주님이 보이는 사람이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은 내게 가장 귀한 소중한 구원이다. 복이다. 자신을 믿지 말라. 자신도 죄로 인하여 부정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탈선한 자다. 그러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인을 위하여 살아라. 나에게서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

과 연합하여 누리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라.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라. 부정한 자신의 것을 누리지 말라.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된다. 불행한 자가 된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다.

교회음악 이야기(59)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빌리그레함 50주년 전도대회 찬양

지난 2023년 6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특별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교회에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되었던 지난 1973년 여의도 광장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가 있는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에서 일만 명 찬양대에 의해 울려 퍼진 "주 하나님/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 쓴 "아메리칸 지저스"에 보면 예수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도, 불교도, 무신론자도 모두 예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열광하듯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상처를 싸매어 주며 원수도 풀어주는 예수에게 미국인들은 열광하며 찬양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때 전국 교회에서 모인 이 대규모 일반 명 찬양대가 조성원 작곡가에 의해 편곡된 찬양이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작곡가는 이 집회를 위해 특별히 편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살아계신 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승리를 송축하는 웅장한 영광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곡을 통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찬양하게 하며 이것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광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이미지가 주는 위로와 평안함이라고 꼬집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족인 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 강력한 메시지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 자체를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 자기만족을 합리화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웅장한 찬양의 모습을 보며 필자는 말씀 역대하 5:13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 지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행위가 나를 합리화시켜 나의 기분을 고조시키려 함인지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 드러내려는 열심인지 점검해 보는 소중한 교훈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기능인지 이전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찬양하는 행위가 한 주 동안 나의 일들 가운데 지쳐있던 심신의 기분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닌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 주일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분명한 목적은 오직 삼위 하나님,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열심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옮기는 예식에서 드리는 찬양을 묘사해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두고 살아가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바른 예배자로 서서 매 주일 예배에 찬양을 드림으로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중한 찬양과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iyoon@wmu.edu

윤임상 목사
Associate Professor of Music
Director of MA in Music Program
미국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DMA)
미국 Azusa Pacific University (MDiv)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M)
중앙대학교 (BA)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케냐

저희와 저희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 케냐는 3월-5월 우기철입니다. 이곳 우기철에는 주로 밤에 비가 내리고 낮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 중순에 혼자 들어와서 매 주말에 마투(MATUU)에 내려가 성경공부와 주일 설교를 하였습니다.

마투(MATUU)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주일 예배와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교회이지만, 학생들과 성인들이 참석하기에 저에게는 누가 세례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는 8주에 걸쳐서 요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케냐에 오기 전에 COFFEE BREAK 성경공부를 배웠는데,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벤엘교회 담임 목사님 방문(나이로비)

4월10일부터 18일까지 저희 파송교회 벤엘교회 백신중 목사님께서 케냐를 방문하셨습니다. 12일에는 시드 파송 선교사님들과 만나 교제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며 13일에는 케냐 한인 연합교회에서 특강과 고엘 신학교 소개를 해 주셨고, 주일에는 연합교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또한 현지 목사님을 만나시고 9월 한국에서 개최될 로잔대회에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는 모습



좌로부터 진재혁 목사, 백신중 목사, 최원현 목사님 사모

아프리카대표로 참석할 목사님들을 방문하고 교제하였습니다. 파송교회에서 처음 방문해 주신 백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단기선교팀이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제목

- 1. 아가페 어린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2. 현재 공사중인 모든 프로젝트

- 3.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의 훈련을 위해서
4. 2024년도에 계획하는 사역들이 잘 진행되도록

- 5. 계속해서 탄자니아, 우간다와 이웃 나라들(브룬디, 콩고, 르완다)에 학사 사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 6. 케냐에서의 안전과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양재주/선숙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남부 무유 종족

▲ 인구 약 4,000명

▲ 종교 민속 종교40%, 복음화율 60%

▲ 복음매체 성경번역필요, 기타매체없음

▲ 종족 프로파일 파푸아 지역에 거주한다. 사냥과 수렵, 낚시, 작물 재배 등으로 살아가며 세고를 주식으로 한다. 시내와 주변 도시에 보건소가 있지만 말라리아, 결핵 등에 쉽게 걸린다.

▲ 기도제목

- 1. 남부 무유어 성경이 속히 번역되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2.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책소개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

'생리학자(Physiologist)가 들려주는 성경 속 생물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가 출간됐다. 본서는 고 최우성박사가 남긴 원고들을 노휘성 소장(예스티칭연구소 소장)이 편집, 저술했다. 노휘성 소장은 머리말에서 "이 책은 창세기의 주요 흐름에 따라 '생물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도록 이끄는 글을 모은 것"이라고 말하며 "진화론은 인류의 역사와 자연사를 분리시켰는데, 이 비틀린 관점으로는 결코 성경적인 창조와 복음을 지킬 수 없다. 이전 세대와 달리 현 세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화된 진화론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치, 경

제, 사회, 역사, 문화, 생태, 인문학까지도 가속적으로 진화론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와 함께 사물 개념과 존재 이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많은 목회자, 지성인, 교사와 학부모, 젊은이들이 창세기의 역사를 감격스러운 사실로 만나기 바란다"고 수록했다.

이제만 회장(창조과학선교회)은 추천사를 통해 "최우성박사의 유작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다"며 "최박사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분야인 생물학적 지식, 성실함은 사역의 많은 열매를 남겼다. 이 책은 그동안 사역을 통해 고인이 간절히 전하고

최우성, 편저자 노휘성



싶어 하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창세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인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성경과 생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섭

리를 발견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일독을 권했다.

본서는 1장 '생물의 창조'- 창조하시니라, 종류대로, 하나님의 형상, 처음이 가장 좋았다!, 2장 '타락한 세상'- 기사뎀불과 영경귀, 돌연변이, 타락한 사람들, 3장 '격변과 방주의 생물들'-방주안의 생물들, 방주 밖의 생물들,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 4장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5장 '바벨탑 사건의 영향', 6장 '인류의 역사와 진화론 그리고 과학'으로 구분 돼 60여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두란노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문의는 <sunandwoo.choi@gmail.com>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4 학년도 학위 수여식 및 Zoom 여름 특강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4 학년도 학위 수여식 및 Zoom 여름특강을 실시합니다.

제 43 회 학위 수여식 (43rd Commencement)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의 제 43 회 학위 수여식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일 시: 2024년 6월 1일(토) 오전 11시
장 소: KAPC 개혁장로회신학대학원 채플
주 소: 대흥장로교회 EM Chapel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설 교: 홍회장
졸업생: 스티브 리 (M. Div), 그레이스 김 (M. C. E.), 김동일 (편목)

Mission and Discipleship (선교와 제자도)



담당교수 박기호 박사 (Fuller 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Ph. D)
기간 2024년 6월 3-5, 10-12일 (서부시간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청강비 \$100

BA, CHONGSHIN UNIVERSITY
MDIV, THEOLOGICAL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ThM,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ACTS)
MA,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Theology and Systematic Theology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담당교수 이승구 박사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Ph.D)
기간 2024년 7월 8-10, 15-17일 (서부시간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청강비 \$100

저서: 『교회란 무엇인가』(나눔과 성경), 『광명의 신학』(합신대학원출판부), 『개혁신학탐구』(하나), 『성령의 위로와 교회』(이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SFC),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SFC),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SFC), 『전환기의 개혁신학』(이레), 『성경신학과 조직신학』(SFC 출판부),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확장 개정판 (CCP) 등 20여권.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djkim3333@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자신도 모르고 한 착한 일



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4-36).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마 25:37-39).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자기 자신마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아주 작은 일이 주님께 알려졌으니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자기를 들어내고 하는 선행은 오히려 도덕적 향락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바람을 보듯이 세상을 보고, 바람을

잡듯이 세상의 인기에 편승하는 행위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며 결국 자기를 침몰시킬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고 일에 몰두할 때 일의 보람을 맛볼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고 선을 행할 때 큰 덕을 쌓을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고 이웃에게 봉사할 때 향기로우며 상상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으로 돋보이게 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고 헌신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다.
 sjkcdc@hanmail.net

알프스의 빙벽을 기어오르고 있던 한 등반가가 자기의 발을 버틸 수 있는 얼음을 열심히 쪼아내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일에 열중한 나머지 두려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작업을 중단하고 천애의 절벽 밑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만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한다.
 풍량이 일던 갈릴리 바다의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

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볼 수 있는가? 사람이 바람을 본다는 것은 허상을 보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념에 사로잡혀 주위의 환경에 눈을 판다

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무념(無想無念)’, 이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로지 일에만 열중하고, 오직 기도에만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들며, 순수하게 주님의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선행 속에서 주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마 25:37-39)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정원을 찾아주는 꽃들 속에서”

증을 갖게 만드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꽃들은 제때를 맞춰서 순서 있게 정원을 장식해준답니다. 그런 이유로 정원은 늘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거닐며 꽃들을 돌아보며 해충들을 잡아주고 살피는 일은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저절로 저로 미소를 짓게 해줍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살피지 않으면 아름답고 예쁘게 피는 꽃들로 인해 얻어지는 마음의 기쁨과 얼굴에 미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예쁜 꽃들을 돌아보

는 일만 그렇겠나 싶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꾸는 일도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지난 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 또한 같은 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의 목양을 뒤돌아보며 생각하니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했다는 생각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자책을 하고 있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나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

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잠 27:23-27).”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이다(마 24:45, 46).”



찾아온 봄날에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물론 꽃들 중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제때

를 기다리지 못하고 피는 꽃들이 있어서 ‘왜 이리 제때를 기다려서 피지 못하고 이리도 일찍 찾아와 피었나?’하고 궁금



제1회 풀러선교학 박사 동문회 선교음악회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션콘서트

콘서트 출연진

 이선행 재즈피아니스트	 John Park Electric Bass	 리더 Randy Kim Los Angeles Praise and Worship	 조영석 CCM Singer	 정종원 CCM Singer	 구현화 CCM Singer	 김은정 수어찬양
-------------------------------------------------------------------------------------------------------	-------------------------------------------------------------------------------------------------------------------	---------------------------------------------------------------------------------------------------------------------------------------	----------------------------------------------------------------------------------------------------------	----------------------------------------------------------------------------------------------------------	----------------------------------------------------------------------------------------------------------	-----------------------------------------------------------------------------------------------------

협력단체




일시 2024년 6월 9일 | 주일 | 오후 5시 30분

장소 사랑의 빛 선교교회 | 윤대혁 목사 사무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Tel. (626) 744-9191

주관 풀러신학대학원 선교학박사 동문회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DGL Alumni Association

문의 풀러선교학박사동문회 회장 김권수 박사 (818) 383-7926,
이훈우 박사 (626) 437-0045

*전석 무료 초대입니다. (공연 중 헌금시간이 있습니다)
*공연 시간 1시간 전 부터 고급커피가 무료로 제공되며, 캘리그래피 작품도 즉석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후원_ 미주복음방송, Hope Fam 여성세미나, PIM선교회, 사랑의 빛 선교교회, LA씨티교회, 영생교회 김재연 목사, 임종훈 장로(MSP Group),
하마통독학교 김권수 박사, 한국일보, 미주크리스찬, 미주조선일보, 크리스천헤럴드, 기독교보, KCMUSA, EWC 미주대포 이재석